관광관련 정부정책

제153호 (2009년 5월 셋째 주) 관광산업연구실·관광지식정보

[국토해양부] 중동/아프리카/유럽 여행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진다 ····· 3
[농림수산식품부]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3
[환경부] 국립공원 생태관광'에코투어'로 통한다! ····· 4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체계 구축 ····· 5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밀반입, 품목도 연령대도 가지각색!! ····· 5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결과 발표 ····· 6
[인천관광공사] 중국 단체관광객 1만명 인천 온다 ····· 7
[인천관광공사] 당일치기 인천관광상품 인기몰이 ····· 8
[서울특별시] 한강에 요트마리나 조성된다 ····· 9
[부산광역시] 부산항 축제, 시민 품으로 성큼 다가서 ····· 9
[부산광역시] 부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 ····· 10
[대구광역시] 특색 있는『대구의 아름다운 거리』선정한다! ····· 11
[광주광역시] '영산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에 반영 ····· 12
[광주광역시] 숨쉬는 광주도심, 녹색공원이 넓어진다 ····· 13
[울산광역시]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시민들이 나섰다" ····· 14
[울산광역시] '자연과 문화가 공생하는 미래형 산악여가공간 조성' ····· 14
[경기도] 2009 국제레저항공展, 레저항공 대중화 가능성 보여 줘 ····· 15
[경기도] 부모님 모시고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놀러오세요 ····· 17
[경기도] 도예 체험부터 책마을까지, 경기도는 지금 축제 중 ····· 18
[강원도] "전통시장, 문화관광 공간으로 거듭난다" ····· 19
[강원도] 봄철(5~6월), 강원도 농촌체험이벤트 행사 즐겨보세요! ····· 20
[충청북도] '09년 1분기 충북도내 관광지 방문객 대폭 증가 ····· 21
[충청북도] 전통시장 러브투어 일석이조 효과 톡톡 ····· 22

[충청남도] 바다에 물든 1억2천만송이 '꽃' 교향곡 완결 눈앞 ····· 23
[충청남도] "태안군 용신어촌체험마을" 금년 여름 개장 ····· 24
[충청남도] 안면도 꽃박에 외국인 관람객도 '넘실' ····· 25
[충청남도] 꽃박' 성공, 서해안지역 이미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 26
[충청남도] 『금강 살리기사업』 금년 9월 착공한다 ····· 26
[충청남도] 충남관광 해외로 해외로... 중동지역TV 홍보에 박차 ····· 27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울경 3개 시도 한목소리 ····· 27
[전라북도] 『수학여행! 전북코스 굳히기 본격돌입』 ····· 29
[전라북도] 시너지 효과 유도하는 전북관광 마케팅! ····· 30
[전라북도] 이제는 전북이다 중국·일본 관광객을 붙들어라 ····· 30
[전라북도] 새만금관광해설 민간전문가 양성 ····· 31
[전라북도] "꽃마차 타러 오세요" ····· 32
[전라남도] 전남-제주,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 공동 추진 ····· 33
[전라남도] 대불산단에 낭만이 있는 쾌적한 숲 조성 ····· 33
[전라남도] 전남 수학여행객 증가로 주요 숙박시설 동나 ····· 34
[전라남도] 신안에 해양펜션·요트장 등 해양관광기반 구축 ····· 34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에 거북선이 뜬다 ····· 35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 ····· 36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 상품 Upgrade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활동 전개 ····· 37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초가집, 한옥체험가옥으로 활용! ····· 38
[제주특별자치도] 한-아센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세계자연유산 홍보의 장으로 ····· 39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9
[해외동향] 日, 올 여름휴가에는 디즈니랜드나 가볼까(KOTRA) ····· 42
[해외동향] 크로아티아 관광산업 동향(외교통상부) ····· 44
[협회동향] '제주국제문화관광 EXPO, 5월 29일부터 개막 ····· 44
[협회동향] "4일간의 세계여행, 한국국제관광전에 초대합니다" ····· 45
[언론동향][연합뉴스] 골든위크에 일본인 4만명 다녀갔다 ····· 46
[언론동향][연합뉴스]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폐막 ····· 46
[언론동향][주간한국] 일본 관광객 특수, 한철 장사 안 되려면 ····· 47

[국토해양부] 중동/아프리카/유럽 여행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09.5.7(木)일 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한·UAE간 항공회담(한국측 수석대표 : 김상도 국제항공과장, UAE측 수석대표 : Mr. Al Suwaidi 민항청 국장)에서 서울-아부다비노선에의 주7회 운항횟수 신설(즉시 주4회, 2012년 주3회 추가증대)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합의로 앞으로 한-UAE간에는 현재 인천-두바이간 운항중인 에미레이트항공(Emirates, 여객 주7회), 대한항공(여객 주3회)외에 새로이 에티하드항공(Etihad)이 인천-아부다비간에 운항하게 된다.

*** 에미레이트항공(두바이 기반), 에티하드항공(아부다비 기반)**

에티하드 항공의 신규취항은 양국 수도인 서울과 아부다비를 직항으로 연결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중동, 아프리카 및 유럽 여행 시 두바이 및 도하(카타르 수도)로 한정되었던 노선에 아부다비가 추가되어 선택권이 다양해지게 되고 여행 편의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우리의 주요 해외건설시장인 UAE와의 경제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UAE는 우리의 제4위 건설시장이며, 시공중 공사는 47개사 68건 약130.7억불(주요공사: 제벨알리 M 담수발전)이며 최근에는 아부다비 도시개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수주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인천에서 중동을 연결하는 네 번째 외국항공사인 에티하드항공의 인천공항 신규취항은 인천공항의 대륙간 연결망을 강화하여 동북아 허브 위상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09.4월 현재 인천공항에는 중동지역에서 에미레이트항공(주7회), 카타르항공(주7회), 이란항공(주1회)이 운항 중**

(국토해양부, 담당 : 국제항공과 홍윤태 사무관(02-2110-8766) | 등록일 : 2009.05.08)

[농림수산식품부]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대상지중 3호방조제 구간(신시도-야미도) 200ha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외 민간투자기업, 금융권, 컨설팅 관련업체 임직원 등을 초청하여 새만금 명소화사업의 투자매력·환경, 입지조건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투자유치 설명회 주요 설명내용》

◇ 투자매력 및 입지조건 설명

○ 투자매력 : 세계에서 가장 긴 새만금방조제 및 주변부지개발이라는 독특한 개발 구상

○ 입지조건 : 새만금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지정, 관광·산업·환경용지 개발 및 배후도시 등 풍부한 개발수요

◇ 투자환경 : 환황해권 및 동북아의 무한한 경제발전 가능성 및 시장 잠재력

◇ 투자기회 : 새만금사업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참여 기회 조성

◇ 민간투자자 지원제도 소개 : 투자 인센티브(인허가의제, 절차간소화 등)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은 33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 제방을 따라 친수공간 등 다기능 부지를 조성하고, 각종 위락편의시설을 도입하여 방조제를 국제적인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금년말 새만금방조제 도로개통과 함께 금번 「새만금 방조제 명소화 사업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민간투자자의 적극적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히며, 새만금 지역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의제 및 사업특례가 적용되고, 용지매수 없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에 장기간 저가임대를 통해 부지를 제공해 주는 등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새만금 지역은 한·중·일을 연결하는 환황해안권의 중심지로 동북아 교역의 중심축으로서 중국 및 일본 대도시와 약 2시간 비행권 내에 인구 1,000만 도시 5개소, 500만 도시 13개소, 약 7억 명의 배후시장이 입지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 4대강새만금과 한준희 사무관(02-500-2471~2) | 등록일 : 2009.05.07)

[환경부] 국립공원 생태관광'에코투어'로 통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생태관광의 참여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난 7일 포탈사이트 '에코투어'를 오픈하고 대국민 One Stop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는 생태관광 포탈사이트 '에코투어'는 전국 19개 국립공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상세히 소개하고, 주변관광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예약까지 원스톱(One Stop)으로 실시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 생태관광 포탈사이트(www.eco-tour.kr)와 연계를 통해 전국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 등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생태관광은 국민의 여가 수요에 대한 자연체험 서비스 제공과 수직적 정상정복형 행태를 수평적 탐방문화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5월 첫째 주까지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2천여 명이 국립공원 생태관광에 참가하였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32개 프로그램을 46회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생태관광 참가자의 다수가 다른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갖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포탈사이트 에코투어에서 참가후기 등 적극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태관광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의 김경출 탐방관리팀장은 "에코투어의 오픈을 계기로 국립공원 생태관광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담당 :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종희(02-3279-2812) | 등록일 : 2009.05.08)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전문 기술지원체계 구축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수질 및 생태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은 4대강 살리기 본격추진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규모가 확대('08 : 1,297억원 → '09 : 2,744억원)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한 전문인력과 인력풀을 확보, 자치단체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부족한 수질·생태분야 전문기술 및 인력을 보완하여 기존 치수·조경·친수에 치우친 사업방식을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실화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은 '4대강 살리기' 관련 각종 하천복원사업, '청계천+20 프로젝트' 등 환경부 지원사업,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하천복원사업 등을 대상으로, 수질 및 생태계 조사·연구,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실시설계, 공사시행, 사후관리체계 구축 등 전 단계에 걸쳐 필요한 기술지원과 자문을 실시하게 되며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자인 자치단체가 기술검토를 요청하면 기술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특히, 자치단체가 기술검토, 공사추진 등 전반에 걸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기술지원센터에서 직접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환경부는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환경관리공단 내에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복원사업단, 대학 및 산업계의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태하천복원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40개 이상의 하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담당 : 수생태보전과 경복규 사무관(02-2110-6839) | 등록일 : 2009.05.12)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밀반입, 품목도 연령대도 가지각색!!

- 밀반입 품목 1등은 외화, 연령은 30대가 최고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기영)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여행자가 세관신고대상 물품을 신고 없이 휴대하여 밀반입하다 관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705건으로, 연령대와 품목이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화 밀반입이 201건(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외화신고에 대한 해외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여행자 밀반입 적발현황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외화 201건 (28%), 명품 핸드백 등 신변용품 175건 (25%), 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의약품 96건 (14%), 가짜상품 85건 (12%), 불법 식료품 63건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분포하였으며 경제적 구매력이 높은 30대, 40대 및 50대가 총 558건으로 전체 705건의 79%를 차지하였다.

품목별 연령대 비중에도 차이가 있어, 외화는 40대 및 50대, 명품 등 신변용품은 30대, 불법의약품은 50대, 가짜상품과 불법식료품은 30대 및 40대가 가장 많이 밀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반입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외화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총 201건, 원화 환산금액 기준 약 148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

통화별로는 엔화 91건(약 86억원), 미화 75건(약 46억원), 한화 17건(약 8억원)으로 3개 통화가 전체 201건의 81%, 전체 금액 약 148억원의 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09년에도 1월 4건(약 5억원), 2월 18건(약 23억원), 3월 23건(약 25억원) 등 총 45건 약 53억원 상당의 외화 밀반입을 적발하여 외화 밀반입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사례를 보면, 4월 7일 일본인 여행자 K씨(48세)는 한국에 거주하는 딸의 주택구입 비용 500만엔은 신고할 필요가 없는 줄 알고 휴대 반입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4월 10일 일본인 여행자 H씨(60세)는 1,145만엔을 휴대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신고할 외화가 없다고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후, 검사가 지정되면 신고할 외화가 있다고 기재한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려다 적발되었다.

현재, 입국 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 및 원화를 휴대 반입하는 모든 여행자는 세관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되면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해외여행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여행자에 의한 마약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외화밀반입 등 국민경제 교란물품의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 등록일 : 2009.05.08)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반적 만족도 4.09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는 2008년 중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여행실태 및 소비실태, 한국여행 평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인천항, 부산항에서 한국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11,97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동 설문조사 결과 외래관광객의 한국방문 횟수는 1회(58.2%), 4회 이상

(19.6%), 2회(14.2%), 3회(8.0%)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 방문목적은 '사업/전문 활동(42.0%)'과 '여가/위락/휴가(40.4%)'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이며 주요목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문 동기(중복응답)는 '쇼핑(44.4%)', '음식/미식탐방(41.5%)', '가까운 거리(40.1%)' 순이었는데 특히 '쇼핑'은 1순위 조사에서도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체재기간은 '6.1박(2006년)'→'6.3박(2007년)'→'6.4박(2008년)'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여행형태 중 가장 많이 차지한 개별여행도 '60.0%(2006년)'→'63.8%(2007년)'→'66.1%(2008년)'로 매년 증가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서울(74.5%)로 전년(73.4%)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며, 이어서 인천(20.9%), 부산(17.7%), 민속촌(13.6%)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내에서는 명동(52.8%), 동대문시장(51.2%), 남대문시장(46.4%), 고궁(43.7%)을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상 깊은 방문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동(20.7%), 고궁(19.9%), 남대문시장(14.5%), 동대문시장(13.4%) 순으로 답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방한 기간 중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쇼핑(57.1%)이었으며, 가장 많이 구입한 쇼핑품목은 식료품(38.1%), 의류(26.6%), 향수/화장품(23.0%) 순으로 조사되었고, 공항면세점(45.9%), 백화점(28.2%), 소규모 상점(24.3%)이 주 쇼핑 장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접근성 및 관광편의성 향상을 위한 관광수용태세 개선노력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년(4.07)보다 증가한 평균 4.09점(5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가(출입국절차, 대중교통, 숙박, 음식, 쇼핑, 관광지매력도, 관광안내 서비스, 5점 척도)를 보면 '출입국 절차'와 '숙박'이 각각 4.07, 4.01로 가장 높았으며 '음식(3.95%)'을 제외한 전 항목이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향후 3년 내 재방문 의사에 대해서는 방문객의 70.0%가 '있다'고 답했고, '사람들이 친절하다(58.5%)', '음식이 맛있다(46.7%)', '안전하다(42.8%)'를 한국여행 시 인상 깊었던 점으로 꼽았다.

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가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소비 증대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여행업계 및 관련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 T2 지식마당)를 통해서도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담당 : 시장조사팀 최석범 과장대리(02-729-9312) | 등록일 : 2009.05.12)

[인천관광공사] 중국 단체관광객 1만명 인천 온다

– 올해, 인천 숙박 기획상품, 외래관광객 유치 핵심상품으로 떠올라

인천관광공사가 인천방문의 해를 기해 기획한 외국관광객을 위한 인천 관광상품이 좋은 반응을 일으키며, 1만명 돌파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국관광공사와 기획 출시한 중국 노인 및 청소년 단체관광객 대상 인천관광 상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금년도 목표를 공격적인 목표인 노인 10,000명, 청소년 5,000명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이것은 인천과 바닷길로 연결된 중국 동북부 연안지역 9개 도시를 중심으로 산동성, 요녕성의 실버층과 청소년들을 2년 가까이 집중 공략한 결과이다. 강화도 화문석 만들기, 철책선 탐방 등의 상품은 최근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에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만해도 1,000명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관광객 유치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시 강화군 등의 강력한 행정지원을 받아가면서 볼거리와 먹거리 확충은 물론 차이나타운, 월미도 등 환대 체계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일에는 산동성 노령공작위원회 고위간부 15명이 인천방문 했고, 이를 계기로 양 도시 간 노인층교류 증진에 더욱 활기를 띠고 있으며 우리 측 부광노인대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인천이 동북아 관광객 교류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까다로운 비자문제가 없는 청소년 관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인천관광공사는 도시축전이 열리는 금년도 5,000명 이상을 목표로 삼고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관광공사 | 등록일 : 2009.05.11)

[인천관광공사] 당일치기 인천관광상품 인기몰이

– '월미달빛누리' 등 수도권 국내관광객 유치 핵심상품으로 떠올라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 코레일 등이 연계 개발한 인천 도심관광상품이 관련시장의 호평을 받으며 국내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출시된 도심관광상품은 '월미달빛누리', '인천별빛열차', '인천으로 통 하였느냐' 등 3가지이다. 이 상품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예상 외로 뜨거워, 올 1/4분기에만 3천여명 이상의 관광객이 인천을 다녀갔다. 흔히 한해의 1/4분기가 관광의 비수기로 꼽히는 기간이고 월미달빛누리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이 출시 3~6개월 남짓한 신상품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성과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세 상품은 모두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월미관광특구와 개항장 일대를 주 대상지로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지만 각각 차별화된 특징을 갖고 있다.

먼저 2006년 출시한 월미달빛누리는 선교발상지, 가족여행, 시도여행으로 나누어져 있어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1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답동성당 등 선교발상지를 돌아보는 코스, 차이나타운, 달동네박물관을 돌아보고 월미도 유람선을 체험하는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가족여행코스, 한류의 주역인 드라마 풀하우스, 슬픈연가 세트장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진 시도를 관광하는 시도여행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별빛열차'는 2008년 11월 출시된 상품으로 수도권 철도관광상품이다. 서울역을 출발하여 인천역으로 오기까지 열차 내에서 프로포즈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와 선물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인천역에 도착하여 차이나타운을 자유관광하고 돌아가는 인천 최초의 철도관광상품이다.

가장 막내격인 '인천으로 통 하였느냐'는 2009년 3월 출시되었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가장 높은 편이다. 2달 남짓한 기간동안 벌써 1,500여명이 이용한 인기상품이다. 수도권 관광객이 지하철을 이용하여 인천역으로 모여서 차이나타운을 돌아보고 유람선에 승선하여 106년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된 팔미도를 관광한다. 팔미도를 오가면서 세계5대 교량인 21km의 인천대교도 볼 수 있다.

이들 인천관광상품은 관광성수기인 여름철을 지나며 더욱 이용률이 확대될 전망이다. 날이 풀리면서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예약도 증가추세에 있어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중에는 아예 도시축전을 관광코스에 추가하여 성공적인 도시축전 개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관광공사 | 등록일 : 2009.05.11)

[서울특별시] 한강에 요트마리나 조성된다

– 여의도 한강공원 요트마리나 사업자 공모

서울시는 여의도 요트마리나 조성과 관련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여의도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은 09.6월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09.7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2010.4 개장을 목표로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에 조성되는 여의도 마리나는 수역면적 14,600㎡, 육상면적 9,500㎡로서 90척내외의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규모로서 수역과 부지조성,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요트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하여 일정기간(20년이내)운영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여의도 마리나는 한강르네상스의 핵심가치인 친환경을 유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되며,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닌 다수 시민의 공공적 시설로의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 평가 시 공공성 및 다양한 공익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중점 평가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요트 마리나 조성이 예정된 지역 중 난지지역은 여의도 마리나 조성 후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여 2010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고, 마곡, 잠실지역은 자체사업계획과 연계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한강공원 요트마리나 조성계획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민의 휴식처인 한강은 한강 르네상스사업으로 변모되는 고품격의 수변시설과 함께, 살아있고 역동적인 모습의 새로운 이미지로 재창조되어 천만시민과 세계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담당 : 한강사업본부 엄재웅(02-3780-0652) | 등록일 : 2009.05.11)

[부산광역시] 부산항 축제, 시민 품으로 성큼 다가서

– 오는 5. 29(금) 오후 7시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설무대 개막식을 시작으로 5.31(일)까지 3일간 제2회 부산항축제 열려..

– 부산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알리고 해양수도의 자긍심 고취 및 부산항의 국내외 홍보 · 마케팅 활동 전개

세계 5대 항만인 부산항의 위상과 중요성을 알리고 부산항 사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부산항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14회 바다의 날 주간인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영도구 동삼동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올해에는 부산항 축제의 대표적 프로그램이자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부산항 투어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산항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주최하고,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를 통해 부산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알리고 시민에게 해양수도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부산항의 국내외 홍보 ·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개막행사인 부산항 열린음악회로 시작되는 이번 축제는 부산항 투어, 바다버스 등 체험행사를 비롯해 부산항 국제교류의 밤과 부산항 홍보관, 골든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막행사인 대북공연과 현대무용, 인기가수들의 부산항 열창 등으로 꾸며지는 부산항 열린음악회와 BPA 항만안내선 '새누리호' 등을 이용해 부산항 북항과 신항을 둘러보는 '부산항 투어', 항만관계자들의 노래자랑인 '항만가족 음악회' 등이 마련돼 있다.

체험행사로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바나나보트와 카테말란 등 해양스포츠와 평소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해군함정 승선 체험, 해운대와 영도를 오가는 부산항 바다버스,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 내부를 전시공간으로 꾸민 컨테이너 체험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치어방류 체험과 배 만들기 체험, 바다사랑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등이 있으며 부산항 홍보관, 해양과학전, 해양자연사전 등이 행사기간 내내 열린다.

한편 축제 개막식은 29일 오후 7시 부산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설무대에서 허남식 부산시장과 노기태 BPA 사장, 국내외 물류 관계자 등 1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크루즈터미널 친수공간 야외에서는 국내외 선사 대표와 부산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가의 대사들을 초청하는 부산항 국제교류의 밤 행사도 마련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함부르크와 로테르담항, LA항 등 세계적 항만들은 항만 관련 축제를 열어 시민에게 항만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면서 "부산항 축제를 부산 대표축제로 육성하여 동북아 중심항으로 발돋움하는 부산항의 위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담당 : 해양항만과 신영한(051-888-3785) | 등록일 : 2009.05.07)

[부산광역시] 부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 포럼 개최

- 내일(5. 12, 화) 14:30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 마련을 위한 포럼 [주최 신라대학교, 후원 부산광역시 및 주) 크루즈 CCK] 개최

- 크루즈산업 전망 및 유치 활성화 방안, Fly&Cruise를 통한 관광객 유치전략, 부산광역시 크루즈 인력양성 방안 등 마련

크루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 내일(5. 12)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고소득 사회의 종합레저산업이며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크루즈산업이 세계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북미, 유럽 위주의 시장형성에서 아시아권에서도 시장형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제크루즈 전용터미널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한국의 남해안과 일본, 중국 등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부산의 우수한 여건을 볼 때, 사전 대비만 충분히 한다면 부산이 아시아 크루즈산업을 선점하고 그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다.

◇ 세계크루즈 이용자 수 : 2000년 1,200만명 → 2007년 1,600만명
◇ 크루즈 이용자 비율 : 북미 68.1%, 유럽 20.9%, 아시아 4.8%, 기타 6.2%
◇ 크루즈 관광시장 연평균 증가율(2015년까지) : 세계 4%, 아시아 6%

이날 포럼은 정홍섭 신라대 총장을 비롯한 학계, 크루즈업계, 한국관광공사, 관광관련 학과 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크루즈산업 전망 및 유치 활성화 방안, Fly&Cruise를 통한 관광객 유치전략, 부산광역시 크루즈 인력양성 방안 등 "부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산·학·관 관련기관 전문가의 주제발표(3명)와 토론(7명) 등으로 구성된다.

포럼에 앞서 신라대학과 (주)크루즈 CCK간의 "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혁 MOU도 체결된다. 신라대학교는 국제크루즈 연계전공과 크루즈 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고, (주)크루즈 CCK는 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체험활동 제공, 크루즈 인턴쉽 제도 운영 등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포럼의 제1주제는 "크루즈산업 전망 및 유치활성화 방안"으로 정진수 한국관광공사 전략상품팀장이 크루즈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 중요성과 세계 크루즈 산업동향, 국내 크루즈시장의 현안사항, 그리고 한국관광사의 사업계획 소개 및 유치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제2주제는 "Fly&Cruise를 통한 관광객 유치전략"으로 백형신 아시아나항공 부산지점장의 크루즈 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중요성, 부산의 지리적 장점 등 크루즈 여건분석, 부산을 모항으로 하는 Fly&Cruise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된다.

제3주제는 "부산광역시 크루즈 인력양성 방안"으로 박범종 부산외국어대 교수는 크루즈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라대학교내의 국제크루즈 연계전공 교육과정 개설·운영, 크루즈 경영학과와 국제크루즈 아카데미 운영계획 소개 등과 크루즈 업계와 연계한 인턴쉽 제도, 크루즈 전문가 인증제 도입 등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대하여 발표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하여 부산이 아시아 크루즈산업을 선점하고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세계 크루즈산업의 추세와 전망, 부산의 크루즈산업 환경과 발전조건,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 부산의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과 과제들을 정리하고, 장기적 비전과 목표 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담당 : 관광진흥과 이환(051-888-3502) | 등록일 : 2009.05.11)

[대구광역시] 특색 있는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 선정한다!

- 8월에 심사, 대구의 명물 거리로 홍보하고 관광명소로 활용할 계획

대구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를 선정한다.

『대구의 아름다운 거리』 선정은 거리의 특색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대구의 밝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고 가로경관개선 사업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선정 대상은 구간길이 최소 50미터 이상이 되는 기 조성된 골목이나 거리로서 전통 및 역사의 거리,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가로수가 아름다운 거리, 인도가 아름

다운 거리, 기타 지역적 특성이 있는 거리 등이며, 각 구·군 또는 개인이 10인 이상 연명으로 7월 17일까지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2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민 스스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려는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리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선정된「대구의 아름다운 거리」에 대하여는 10월에 시상과 함께 표지판을 설치하여 대구의 명물 거리로 홍보하고 관광명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담당 : 도시디자인총괄본부(053-803-4715) | 등록일 : 2009.05.06)

[광주광역시] '영산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살리기에 반영

– 하천환경정비사업 등 3개 사업 4,110억원 규모

광주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정부에 건의한 '영산강 살리기 사업' 23개 가운데 하천내 3개사업은 반영됐고, 관련 중앙부처 연계사업 20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의사업 가운데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자연학습원 4곳, 첨단친수시설 1곳, 사계절풍경원 3곳, 실개천 및 습지조성 2곳과 하반림 및 초지조성과 자전거길 80㎞ ▲하도준설 40㎞와 하천양안 둔치조성 80㎞ ▲하천 내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저류보 4곳 등 3개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됐다. 또한, 시가 건의한 사업 외에도 추가로 수위유지를 위한 승촌보 1곳이 광주시 관내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7일 열리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지역설명회' 자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사업은 광주구간 영산강 하천정비사업 등 6조 9,409억원 규모 23개 사업이다.

광주시가 건의한 사업 중 오는 2011년까지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은 3개 사업에 4,110억원 규모이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연계사업은 하수관거정비 등 수질개선사업과 국제민속촌조성 등 문화·관광분야 등 20개 사업에 6조5,299억원 규모다.

영산강 벽진나루워터프론트 개발, 영산강·황룡강 합류부 종합개발, 복합수상레저 스포츠공원과 영산강 대상근린공원조성, 하수관거정비 등 연계사업은 관련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는 5월말 관련 부처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에 건의한 연계사업이 관련 부처의 사업계획에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영산강살리기사업을 통해 영산강과 황룡강의 하도준설과 저류보 설치, 하천부지 활용 등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홍수와 가뭄에 안정적이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하천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4대강 살리기에 부응해 영산강 수질개선과 역사문화 및 관광개발, 수변공원 조성 등 연계사업을 병행 추진,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비를 확정하고 정부에 추진을 적극 건의해왔다.

(광주광역시, 담당 : 건설도로과(062-613-4650) | 등록일 : 2009.05.06)

[광주광역시] 숨쉬는 광주도심, 녹색공원이 넓어진다

– 오는 2010년까지 광주공원 주변 주제별공원 조성, 녹지공간 확대

광주도심이 남구 구동 광주공원을 중심으로 한 녹색공간으로 연결된다.

광주시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문화공원 조성과 ▲광주공원 생태숲 복원, 광주공원 면적 확장·재정비 ▲향교 앞 시가지를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광주공원 인근을 녹지공간으로 잇는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녹색성장의 모델도시로서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1천만그루 나무심기와 함께 추진하며, 지난 20여 년간 재래시장 기능이 쇠퇴한 옛 구동시장을 활성화하고, 광주공원과 주변 녹지를 주제별로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0년까지 추진한다.

빛고을 시민문화관 앞 옛 구동시장 주변 문화공원 조성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문화공원은 '빛고을시민문화관' 앞에 위치한 문화공원으로 광주공원 인근 공원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될 예정이다.

옛 구동 실내체육관 자리에 들어서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일부 노후 건물들을 철거하고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도록 지난 1월 문화공원(5,547㎡)으로 지정돼 현재 보상과 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월 본격 공사에 들어가 2010년 빛고을시민문화관과 함께 완료할 계획이다.

향교 앞 시가지 정비로 역사공원 조성

광주의 대표적인 유교문화의 산실인 향교 앞 옛 시가지는 향토 수목을 중심으로 숲을 정비한다.

시는 역사문화 공간을 표방하는 아시아전통문화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 1월 역사공원(2,571㎡) 지정을 완료하고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2010년 정비를 마치면 도심 지역의 유교역사를 담은 녹지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공원과 광주천 사이 구 시가지 정비, 광주공원 확대

광주공원의 숲을 도심으로 확장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시는 광주공원과 광주천 사이 구 시가지(신광교회 앞 3,973㎡)를 정비해 옛 광주공원의 등고선 원형복원을 통한 생태숲을 조성한다.

이곳 생태숲은 기존 광주공원과 함께 광주천과 아시아문화전당 등 주변 시설과 연계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광주공원 확장을 위해 노후시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 시는 올해 말까지 공원지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공원은 지난 1971년 4월 개방돼 시민회관과 무진회관 등 문화시설과 현충탑, 서오층석탑, 위패봉안소 등 역사시설, 63종 18,000주의 수목들이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찾고 즐기는 공간으로 맥을 이어왔으나, 최근 도심이 확대 개발되고 광주공원 주변 시설 노후화에 따

른 이용자 급감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공원 일대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심속 생태 숲으로 조성해 광주의 1호 근린공원으로서의 명맥을 살린 새로운 명소로 가꿀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담당 : 공원녹지과(062-613-4220) | 등록일 : 2009.05.11)

[울산광역시]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성공개최 "시민들이 나섰다"

- 840여개 단체 범시민협의회 구성, 6일 출범…참여분위기 확산 기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09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를 위해 울산지역 8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범시민협의회를 구성, 엑스포 성공개최와 붐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6일 오후 3시 울산시청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범시민협의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시민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범시민협의회(회장 김명규·전 울산시정무부시장)는 840여 곳의 울산지역 사회·직능·봉사단체로 구성됐으며 엑스포 붐 조성 및 홍보, 시민 참여유도, 행사지원 등의 역할을 맡았다.

이와 함께 기초질서 지키기 실천운동, 행사장 자원봉사, 관람객 환영 및 유치 등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엑스포 성공개최를 지원한다.

출범식 행사는 경과보고와 인사말, 결의문 낭독, 축하공연, 미리 보는 옹기문화엑스포 영상물 상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의문 낭독은 국제로타리클럽 3720지구 김종을 총재와 울산광역시 생활개선회 이명숙 회장이 회원들을 대표해 "옹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범시민협의회 회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솔선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엑스포의 성공개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며 "범시민협의회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분위기를 확산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직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입장권 사전예매를 시작으로 157일 앞으로 다가온 엑스포의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전시·학술행사 등 공식프로그램은 물론 관람객 편의·안전·주차시설 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담당 : 옹기엑스포조직위 정선희(052-229-6692) | 등록일 : 2009.05.06)

[울산광역시] '자연과 문화가 공생하는 미래형 산악여가공간 조성'

- 울산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용역' 착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난 4월 28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트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의 제안서를 심사, '영남내륙의 푸른 기백과 젊은 열정(Soul Mountain)'이란 개발 컨셉을 제시한 (주)디이파트너스·(주)경호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오는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울주군과 주민대표, 외부 전

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현 가능한 알찬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부 제안 내용을 보면 영남알프스를 "자연(산)과 사람과 문화가 공생하는 미래형 산악여가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개발방향으로는 '관광 매력성(이색적 모험레포츠 공간), 지속가능성(보전과 활용을 통한 청정여가공간 조성), 지역밀착형(양산·밀양·경주·청도 등 주변 도시와 어우러진 여가공간 조성), 문화재생산(생태역사자원과 문화자원 결합)을 제시했다.

핵심 전략 허브 사업으로는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찾아가는 살아있는 자연휴양공간, Friendly Hill"이란 개발 컨셉을 제시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오토캠핑존과 생태학습원(사계절 공원), Natural Play(자연형 교육 및 놀이공간), Green Pool/Sunbathing(잔디휴게광장)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기존 집단시설지구 등에 대한 개발정비방안들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대표 이벤트 개발 및 테마상품개발, 등산코스 프로그램 및 연계방안, 웰빙 트레킹, 영남알프스 공유 시·군간 연계를 위한 영남알프스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도 제안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사업추진 중인 동남내륙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남알프스를 동남권 최대의 산악관광 클러스트로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강동권 개발 등 해안관광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매력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담당 : 관광과 김진환(052-229-3880) | 등록일 : 2009.05.08)

[경기도] 2009 국제레저항공展, 레저항공 대중화 가능성 보여 줘

– 관람객 30만 명/수출계약 1,400만 달러, 흥행과 실적 모두 성공

'2009 국제레저항공展'이 30여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1,400만 달러 수출계약체결(구매의향서)이라는 성과를 올리고 5일(화) 성황리에 폐막했다. (5일 16시 30분 기준 관람객 296,257명)

이번 항공전은 102대의 레저항공기와 33개의 항공업체가 참가해 국내최대 규모의 레저항공전으로 기록됐다.

■ 흥행과 실적에서 모두 성공한 국제레저항공전

개막 첫날 3만 6천여 명이 다녀간데 이어, 둘째 날에는 비가 내리는 악조건 하에서도 3만 6천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일요일인 셋째 날과 월요일인 넷째 날에는 6만 5천여 명과 4만 8천여 명이 각각 다녀갔으며, 어린이날인 5일에는 10만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절정을 이뤘다.

기존 입장개시 시각은 오전 10시였으나 9시가 지나면서부터 관람객이 몰려, 이튿날부터 입장시각을 10시에서 9시 30분으로 앞당기기도 했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행사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관람객이 수십m의 줄을 서고 입장을 기다리는 진풍경을 보여줬다.

4일(월)에는 (주)진글라이더가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10개국과 1,400만 달러(178억 원)에 달하는 패러글라이더 수출계약(구매의향서, LOI)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 1,400만 달러는 국

내 레저항공시장 2,673억 원의 6.6%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패러글라이더 생산력과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특히 진글라이더는 세계시장보다 2년 이상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와 '제1회' 국제레저항공전이라는 어려움을 고려하면 이번 행사는 흥행과 실적에서 모두 성공을 거둔 셈이다.

■ 초경량비행기탑승체험과 에어쇼,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행사기간 중 총 3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초경량항공기 탑승, 열구기 체험, 행글라이더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겼다. 특히 초경량항공기 탑승체험은 관람객들의 폭발적 관심으로, 사연선정을 통한 기존 탑승자 이외에 추가로 현장 신청을 받아 최대한 많은 인원이 탑승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총 400여 명이 초경량 비행기를 타고 시화호를 감상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탈리아 곡예비행단 '파이어니어' 팀의 에어쇼 역시 인기를 모았다. 4대의 'Pioneer 300' 비행기가 불꽃을 내뿜으며 하트모양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탄성이 절로 나왔다. 이탈리아 조종사와 기념 촬영을 한 박이현(5.경기 화성시)군은 "하늘에서 연기를 내보내며 묘기 부리는 비행기가 너무 멋져요. 저도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모형 열기구·헬기제작, 물로켓, 조종사 강연 등으로 꾸며진 교육/캠프, 문화/소방행사에도 6만 2천 5백여 명의 참가자가 몰려 레저항공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 레저항공 대중화 가능성 열어

조직위 측은 "이번 국제레저항공전에 3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 총 6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소득유발효과 1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7억 원에 달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외에도 이번 항공전은 국내레저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토양을 마련했다. 32조 8,500억 원 규모의 세계레저항공분야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레저항공시장은 이 중 0.8% 정도인 2,673억 원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는 제대로 된 레저항공 비행장이 거의 없어 동호인들은 해외로 나가고,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모순이 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15만 5,000여 명의 동호인이 레저항공을 즐기고 있고, 기술력과 인적 수준은 세계적이다. 국내레저항공산업은 여건만 마련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블루오션시장이다.

레저항공을 주제로 한 이번 항공전은 대중들의 레저항공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향후 국내 레저항공이 대중화될 가능성을 높였다. 초경량비행기와 경비행기 구입이 5,000만원 내외에서 가능하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나아가 경기도는 항공레저와 항공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항공 복합단지'를 서해안 일대에 조성할 예정이다.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관제·정비 시설, 계류장, 항공레저 기초훈련장, 클럽하우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해 레저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제레저항공전은 어린이들에게 하늘에 대한 꿈과 희망, 모험정신을 심어줬다"며 "경기도는 신성장동력인 레저항공산업의 미래발전을 선도하고 산업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담당 : 국제레저항공전 조직위원회 사무국(031-500-4902) | 등록일 : 2009.05.06)

[경기도] 부모님 모시고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놀러오세요

– 어버이날, 무료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풍성

– 부모님과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컨셉의 공연 풍성

– 손자와 즐거운 추억 만들 체험행사와 어버이날 이색선물 도자기 판매장 마련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에는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도자 전시와 공연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선물할 다양한 종류와 가격대의 도자 작품도 마련되어 있어 어버이날 코스로 제격이다.

오는 5월 24일까지 펼쳐지는 '2009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The 5th World Ceramic Biennale 2009 Korea)'에는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을 모시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흥겨운 무료 공연 풍성

우선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으로 안산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의 공연이 8일 광주행사장에서 진행되며, 가마터에서 펼쳐지는 운치 있는 전통국악연주와 평택웃다리농악단의 흥겨운 농악 한마당, 이순림 무용단의 흥겨운 몸짓이 9일 이천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이밖에도 아름다운 음색의 오카리나 공연이 매일 진행되며, 부모님들이 젊은이들의 신나는 감성을 느끼며 보다 젊어질 수 있는 퓨전재즈밴드의 공연도 이천, 광주, 여주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은 시간과 지역별로 정해져 있으니 자세한 공연일정을 참고해 미리 알아보고 행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 손자와 함께 즐거운 추억만들기

또한 부모님과 손자들이 함께 행사장을 찾는 가족들이 있다면 손자들의 재롱과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체험 행사에도 함께 참가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 흙놀이 경연대회'에서는 흙높이 쌓기(클레이올림픽)와 토야 만들기 등이 진행되는 등 행사장 곳곳에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도자기에 그림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도예가의 도움을 받아 물레를 이용하여 도자를 만들어 보는 물레체험과 손자들이 흙에 대한 친밀감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흙놀이방, 물레성형, 즉석 도자기 만들기, 도자기 굽기 체험, 전통 가마 불 지피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부모님께 선물할 아름다운 도자기와 특산물 먹거리도 다양

어버이날 부모님께 선물해드릴 이색적인 도자 작품도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에 가득하다. 행사기간 동안 이천 행사장에서는 이천지역 160여 도자업체가 참여하는 '도자판매전'이 개최된다. 식자기, 혼수자기, 인테리어 소품, 도자선물세트(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날 선물용) 등 수천여종의 도자상품이 판매된다.

여주 행사장에서는 비엔날레 기간 중 행사장내 전시관 관람권(예매권 포함) 구입자 또는 5만

원 이상 도자물품 구매자에 한해 관광지나 업체에서 할인혜택으로 관람객을 맞고 있다. 광주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왕실도자기 상설 경매'는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인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뤄진다. 왕실도자기의 맥을 잇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경매로 구매할 수 있다.

부모님과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이천과 여주에서는 기름진 햅쌀을 이용한 고슬고슬한 쌀밥과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임금님 상차림을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 붕어찜 축제가 열릴 만큼 원조를 자랑하는 광주 분원마을의 붕어찜 메뉴도 유명하다.

(경기도, 담당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담당 김기세(031-249-4722) | 등록일 : 2009.05.07)

[경기도] 도예 체험부터 책마을까지, 경기도는 지금 축제 중

– 축제의 달 5월 맞아 지역 축제 풍성

화창한 5월의 주말을 집에서 보낼 수 없다면 이번 주말 경기도로 가보자. 축제의 계절을 맞아 도자기, 꽃, 책 등을 주제로 경기도는 한창 들썩거리고 있다.

■ 채림처럼 만들고 F4처럼 쇼핑하는 도자기의 모든 것 –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드라마 속의 채림이나 김범의 도자기 빚는 모습이 멋져보였다면 이번 주말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 가자.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는 누구나 흙을 직접 만지며 도자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자비엔날레 행사장을 방문하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도예 명장과 함께 흙을 빚으며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다. 내손으로 만든 도자기에 그림도 그리고 무늬도 넣으면 드라마 속의 채림과 김범처럼 도예가가 될 수 있다.

이천, 여주, 광주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는 도예 체험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국제공모전 수상작 및 조선시대 명품 분원백자 관람을 통해 '도자기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는 평소 눈여겨 봐 왔던 명품 도자기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행사기간 동안 이천 행사장에서는 이천지역 160여 도자업체가 참여하는 '도자판매전'이 개최된다. 식자기, 혼수자기, 인테리어 소품, 도자선물세트 등 수천여종의 도자상품이 판매된다. 여주 행사장에서는 비엔날레 기간 중에 전시관 관람권과 5만원이상 도자기를 구입하면 주변 관광지 및 한정식집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 행사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열리는 '왕실도자기 상설 경매'를 통해 왕실도자기의 맥을 잇는 명품 도자기들도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다.

■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마을 – 파주출판단지 어린이책잔치

지난 1일부터 열린 파주출판단지 어린이책 잔치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이지만 어른들을 위한 볼거리도 가득하다. 제 2의 가로수길로 뜨고 있는 파주의 아름다운 가게들과 어우러진 환상적인 분위기의 그림책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그림책 전시와 함께 60·70년대 만화와 교과서들도 전시되어 옛 학창시절의 향수를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이번 축제 기간동안에는 문학동네, 창비 등 평소에는 쉽게 가보기가 어려운 출판사 사옥도 구경할 수 있

어 문학 소년 소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 세익스피어부터 헤드윅까지 한번에 즐기자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평소 영화, 연극, 뮤지컬을 좋아했다면 5월에는 의정부에 꼭 한번 방문하자.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서는 멕베스부터 헤드윅까지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뮤지컬계의 스테디 셀러이자 영화로도 제작되어 유명한 '헤드윅'을 유명 배우들의 연기로 만나 볼 수 있다.

특별히 이번 축제에서는 '희망티켓'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000원부터 10,000원 사이에서 관객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내고 공연을 볼 수 있게 하여 초보 관객이 느끼는 공연에 대한 거리감을 줄였다. 공연장 밖에서 열리는 60여개의 프린지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을 축제로 끌어들인다.

(경기도, 담당 : 관광진흥과(031-249-4722) | 등록일 : 2009.05.12)

[강원도] "전통시장, 문화관광 공간으로 거듭난다"

도내 전통시장의 문화관광 공간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원도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등 외부관광객을 전통시장으로 본격 유치하기 위해 「전통시장 문화관광상품화 사업」을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도는 우선 수도권 주민 1,300여명을 대상으로 도내 전통시장과 관내 관광지·축제 등을 연계한 코스를 탐방하는「전통시장 탐방단」을 5월부터 11월까지 20여회에 걸쳐 운영하고, 이와 동시에 수도권 지하철 TV를 통해 4개월간 도내 문화관광 특성화 시장을 소개하는 홍보방송을 시작한다.

【 문화관광 특성화시장 】
○ 관광지 : 7시장(강릉중앙, 속초중앙, 정선사북·고한, 철원동송, 고성간성) ○ 대표상품 : 4시장(강릉주문진, 횡성횡성, 영월서부, 철원신철원) ○ 5일장 : 6시장(동해북평, 평창봉평·진부, 정선정선, 양구양구, 양양양양)

또한, 강원도는 지난해 정부지원 문화관광형 시범시장 4개소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된 강릉 주문진시장이 금년 2월부터 시장 달력 제작, 시장신문 발간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4월에는 동해안 풍어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컨텐츠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금년 6월부터는 강릉시가 문화관광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인 점과 주문진시장 문화관광 육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 여러 부처의 지원을 받아 각각의 사업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도 산업경제국장 주관으로「주문진 문화관광시장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5월 21일경 주문진에서 개최하여 각 사업팀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보교환 및 아이디어 도출, 지역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개요 】

○ 사업기간 : 2008년 ~ 2011년
○ 총사업비 : 9,100백만원 (국·균 5,500, 도 1,360, 시 1,440, 자부담 800)
- '08년 : 2,290백만원 (국 1,300, 도 480, 시 480, 자부담 30)
·기반시설 조성(중기청) : 1,690백만원(국 1,000, 도 330, 시 330, 자부담 30)
·컨텐츠 개발(문체부) : 600백만원(국 300, 도 150, 시 150)
- '09년(컨텐츠 개발) : 400백만원 (국 200, 도 60, 시 140)
- '10~11년(기반시설 조성) : 6,410백만원 (균 4,000, 지방비 1,640, 자부담 770)
○ 사업내용 : 시장내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문화관광 컨텐츠 개발
- 이벤트거리 조성, 상점가 정비, 상징조형물, 공연프로그램 개발 등
○ 추진상황
- 주문진 문화관광시장 육성연구용역(국비 6천만원, 강발연) : '08. 11월
- 주문진 문화관광 공공디자인 개발(국비 3억원, 한국디자인진흥원) : '09. 5월

이번 워크숍은 강원도, 강릉시 및 각 사업별(문화관광기반시설 설치, 공공디자인 개발, 문화컨텐츠 개발 등) 실무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도·시의원과 문화·관광분야의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문화관광시장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다양한 의견교환과 아이디어 도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강원도는 전국최초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권 전통시장 1~2개소를 대상으로 빈 점포를 활용한 「전통시장 어린이 도서관 설치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건조한 도심지 중심상권에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촉촉한 문화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내년에 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설치·운영한 후 고객과 상인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도내 도심권 전통시장으로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빈점포를 활용한 어린이 도서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부모들에게는 쇼핑의 편의를,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형식의 문화를 제공하는 한편, 사서와 보육을 겸한 도우미 배치로 일자리 창출까지 일거삼득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문화관광 공간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 도내 전통시장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나 갈 계획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매력적인 관광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통시장 문화관광화 사업」에 보다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담당 : 경제정책과(033-249-3212) | 등록일 : 2009.05.07)

[강원도] 봄철(5~6월), 강원도 농촌체험이벤트 행사 즐겨보세요!

강원도는 봄철 농촌체험 적기를 맞아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촌체험이벤트 행사를 준비하여 봄철 농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봄철 5~6월 농촌체험행사는 농촌을 떠난 도시민들이 어린 시절 고향에서 신나게 뛰놀

던 추억과 감동을 주고자 마을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규모 농촌체험행사 위주로 40개마을에서 65개 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요 행사로는 유기농 쌈채수확, 토마토수확, 고구마심기, 호박심기 등 농작물 체험과 곰취, 곤드레, 더덕, 도라지캐기, 산나물요리 등 산촌생태체험, 음식솜씨자랑, 떡메치기, 손모내기행사 등 전통문화체험, 도농화합한마당 축제, 소비자 초청의 날 및 1사 1촌 등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래방객 68천명을 유치하여 1,360백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마을에서는 많은 도시민이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특색 있고 차별화된 체험행사를 준비하였다.

또한, 강원도는 이번 봄철 이벤트행사를 계기로 도시민에게는 농촌체험과 더불어 청정농산물로 요리한 토속음식을 제공하여 고향의 정취를 전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외소득을 높이는 한편, 도농교류활성화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이번 봄철 강원도를 찾는 도시민들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농산촌관광체험 마을을「가볼만한 농산촌여행지」로 적극 추천하고, 여름철 농산촌에서 휴가 보내기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현재 강원도에서 농촌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은 212개소로 이중 73개소의 농촌관광체험마을에서는 전통적인 농사체험과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29개소의 농촌전통테마마을에서는 농촌의 고전·역사 등을 테마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산림욕, 산림문화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 및 산촌마을 45개소와 관광농원 65개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마을별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펜션 등 숙박시설, 토속음식점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농촌관광마을 현황과 체험내용은 강원도 그린투어리즘포털사이트(www.greengangwon.com)를 이용하거나 각 시·군 홈페이지 농촌관광사이트를 이용하면 5~6월 봄철에 강원도 농산어촌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촌체험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 담당 : 농어업정책과(033-249-2706) | 등록일 : 2009.05.07)

[충청북도] '09년 1분기 충북도내 관광지 방문객 대폭 증가

– 전체 방문객 수 6,841천명, 외국인 방문객 수 100천명

충북도는 지난 1분기('09. 1~3월) 도내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6,841천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국 내·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415천명(6.5%) 증가한 수치다. 외국인은 32천명(47.1%) 증가한 100천명을 기록하여 관광지 방문객 조사통계 이래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난 해 "3대 국제 관광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고,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는 등 그간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단양군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1분기에만 31천명(70.5%) 증가한 75천명이 방문하여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주요관광지별 증감 현황으로 청남대 3천명(5.8%), 월악산 5천명(8.1%), 단양팔경 14천명(3.4%)이 각각 증가하였고, 수안보 157천명(-16.8%), 속리산 8천명(-8.2%), 소백산 2천명(-2.2%) 등은

감소하였다.

선호관광지(유료관광지 기준)로는 수안보 575천명, 단양팔경 431천명, 앙성온천 192천명, 상수허브랜드 132천명 순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단양팔경 16천명, 상수허브랜드 12천명, 수안보 5천명, 온달관광지 3천명, 청풍문화재단지 2천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도내 방문 관광객 수를 4,5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충청권 방문의 해"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에는 외래 관광객 5,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방문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0 충청권 방문해 사업」추진을 통하여 향후 외래 관광객 5,000만명 유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2010 충청권 방문해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충북의 「충북의 맛집·멋집」 통합정보시스템 구축(6~10월), 방문의 해 홈페이지 구축(6~10월), 국내·외 관광설명회 개최(5~12월), 관광안내체계정비, 충청권 3개 시·도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추진(하반기), 충청권방문의 해 자체 선포식(12. 31)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09. 1/4분기 관광지 방문객 현황(총괄)

구분		'09. 1/4분기	'08. 1/4분기	증감
계		6,841	6,426	415(6.5%)
무료관광지		4,127	3,808	319(8.4%)
유료 관광지	계	2,714	2,618	96(3.7%)
	내국인	2,614	2,550	64(2.5%)
	외국인	100	68	32(47.1%)

(충청북도, 담당 : 공보관 김동수(043-220-2064) | 등록일 : 2009.05.06)

[충청북도] 전통시장 러브투어 일석이조 효과 톡톡

충북도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러브투어 지원 사업이 상인들의 많은 호응과 더블어 지역 특산품과 전통시장, 주요 관광지를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부터 도내 북부권, 중·남부권의 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여 장도 보고 관광도 하는 일석이조의 알뜰 장보기 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의 우수한 특산품 쇼핑과 관광지 방문 및 지역문화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제천·보은·진천 등 3개 시·군이 선정되어 25회에 걸쳐 4천여 명이 방문 할 예정이며 도와 시·군비 229백만원을 투자하여 충주·제천·보은·단양 등 4개 시·군에서 15천여 명의 대도시 주민들을 참가 시킬 계획이며 총 매출액은 6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도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철도청과 연계한 관광열차 및 전세 버스를 활용한 러브투어 사업은 총 82회에 걸쳐 1만 여명의 대도시 주민들이 다녀가 지역 특산물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홍보, 충북의 아름다운 관광명소를 전국에 알리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도 4월까지 청주 육거리시장, 제천 약초시장과 내토시장, 보은 재래시장 등에 6회에 걸쳐 1,300

여명이 찾아 왔으며 인근 속리산, 충주호, 상수 허브랜드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브투어 참가자들은 도시 주부층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에 대한 추억이 아련한 노인층부터 어린자녀의 손을 잡고 참석한 이들까지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채소, 약초, 봄나물 등을 구입하고 허브축제에 참여하여 비누·향초 만들기, 화분심기 등 직접 체험을 통해 관광지를 돌아보고는 다시 찾고 싶은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러브투어는 물론, "2010 충청권 방문의 해"와 "제천 국제한방엑스포"를 대비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이 한층 성숙된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1시장 1슬건 갖기, 상인대학 운영, 친절·경영 마케팅 등 맞춤형 교육 확대, 1시장별 5개 이상 자매 결연을 맺는 1+5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담당 : 공보관 김동수(043-220-2064) | 등록일 : 2009.05.08)

[충청남도] 바다에 물든 1억2천만송이 '꽃' 교향곡 완결 눈앞

– 7개 '스타꽃' 앞세워 110만명이상 관람예상... '억대 클럽' 도 인기

환상적인 세계 꽃들의 대향연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각종 새로운 기록들을 빚어내고 있다.

연일 8만~9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 수치가 웅변하듯, 뜨거운 관람열기 못지않게 박람회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수치들도 흥밋거리다.

지난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2009안면도꽃박람회는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29-1 꽃지 해안 주행사장 45만2천㎡ 자연휴양림 수목원 부행사장 34만㎡ 등 총 79만3천여㎡ 부지 위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7일간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와 충남 16개 시군, 해외 56개 정부 및 지자체, 업체 그리고 3개 연구기관, 28개 국내 업체 등 총 22개 나라 121개 업체 단체 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동시 공인한 명실상부한 국제박람회.

'꽃, 바다 그리고 꿈'을 주제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 총 사업비 160억원이 투입돼 관람객 11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아래 그간 열린 국내 여러 박람회 가운데 보기 드문 성공적 사례로 기록될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지난 2007년 12월 암흑 같은 서해안 기름재앙에 맞서 눈보라 속에서도 싸워준 123만 피해복구 자원봉사자의 숭고한 정신이 짙게 배어있는 꽃박람회라는 점에서 일본 효고현 아와지섬 꽃박람회와 같은 유사 사례를 뛰어 넘는 인간에 의한 환경재앙의 무서움과 환경보존의 의미를 교훈해주는 산 교육장으로 남을 것이란 전망이다.

엠블렘 속에 든 6개의 꽃잎은 5대양 6대주가 하나 되는 국제적인 꽃박람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7개 실내전시관과 인근 꽃지 해변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가운데 세계 57화종 132만여 본의 꽃들로 단장한 15개 야외테마정원을 구성, 이들을 관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시간 반.

이 가운데 이번 꽃박람회의 주제를 함축성 있게 표현해주고 있는 주제관 <플라워 심포니관>은 123만 자원봉사자를 대분류 방식으로 표현해 '백만송이 꽃터널'을 연출하고 있으며, 후반부 18m의 초대형 화면에 8개 프로젝터와 샌드스크린을 이용한 장대한 스케일의 영상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꽃으로 만든' 장대한 교향곡. 일시 최대수용인원은 1,060명.

이번 박람회에 전시 출품된 신품종만도 국화류 21종, 백합 10종, 튤립1종 등 총 34종. 이 외에도 불에 타도 꽃피우는 '그래스트리'와 세상에서 가장 큰 씨앗 '쌍둥이 야자씨'를 비롯한 7개의 킬러컨텐츠는 이번 박람회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손색없다.

여기에다 가장 인상깊은 전시물로서, 박람회장내 최대 랜드마크를 자랑하는 <꽃토피어리 숭례문>은 검은 재로 변해버린 국보 제1호 숭례문의 조속한 복원을 기원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정확히 실물크기의 2분의 1크기에 6만본의 초화류로 단장한 사상 최대 역작.

숭례문 인근 3천본을 식재한 장미원을 지나 210점의 분재가 자태를 뽐내는 분재원을 돌다가 돌연 눈을 휘둥그레 만드는 10억원 호가의 향나무 분재, 멀리 부전시장 수목원 <양치류 전시관>에 전시연출된 2억8천만년 전 고사리 화석, 2002년에 이어 꽃박람회장 초입부를 낙락장송 인양 지키고 서 있는 안면송으로 (조경)업자들 사이에 시가 1억원을 호가한다는 '1억송' 등은 이번 '1억2천만송이 대향연' 꽃박람회가 자랑하는 소위 '억대' 클럽.

그런가 하면 주제관(13억원)의 2배에 이르는 총 27억원이 투입(참여기관 부담)된 <꽃의 미래관>에는 국내에 단 200본 자생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는 울릉도산 '섬시호'도 있다.

이 모든 꽃들의 대향연 연출을 위해 김종구 조직위원장과 권희태 사무총장 등 62명의 조직위 식구들은 물론, 57명의 '꽃' 도우미, 626명의 자원봉사 요원, 경찰, 민간단체, 협력업체 등 관계자 모두는 200만명 관람객 입장까지 조심스레 점치면서, 얼굴 검게 그을리는 것도 아랑곳 않은 채 오늘도 안면도 앞 바다에 어우러지는 한 편의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가고 있다.

(충청남도, 담당 : 경제규(041-670-6128) | 등록일 : 2009.05.06)

[충청남도] "태안군 용신어촌체험마을" 금년 여름 개장

– 금년 여름 피서객 대상 개장, 조개채취, 별자리 관찰 등

충남도는 태안군 용신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내달 완료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금년 여름 피서객을 대상으로 어촌체험장을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신마을은 태안읍에서 안흥항을 연결하는 도로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연포해수욕장과 채석포항이 있고, 어촌체험장은 해안선이 육지 깊숙이 들어온 만에 위치하고 있어 갯벌자원이 풍부하고 또한 하늘 높이 쭉 뻗은 해송림, 원안해수욕장 등 여름철 가족단위 관광객이 선호하는 체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용신마을 어촌체험장에서는 ▲조개채취 ▲갯벌생물관찰 ▲갯벌조개류 ▲별자리 관찰 등 생태관찰 시설과 ▲어구 만들기(조개 채취기) ▲낚시 ▲정치망 ▲횃불어업 등의 체험 ▲해수욕장 활동 ▲해양레포츠 등의 레크레이션 ▲어촌민박활성화를 위한 전통 민속놀이 음식 만들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수변데크 2층 700㎡와 해안 산책로설치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세족장, 간이화장실, 종합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다는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관광객들 수요가 늘어나고 어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마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촌체험마을은 주 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와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면서 관광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어가의 어업 외 소득 증대와 더블어 고령화로 피폐되어 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도는 2001년부터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서천 월하성 마을 등 현재 7개소가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125천명의 관광객이 찾아 체험시설 이용 및 지역 특산품 판매 등으로 3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충청남도, 담당 : 농림수산국 수산과 김상욱(041-220-3538) | 등록일 : 2009.05.06)

[충청남도] 안면도 꽃박에 외국인 관람객도 '넘실'

- 외국인 유치목표 2만2,000명도 돌파... '국제' 행사 위상 과시

'세계 꽃들의 대향연' 2009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입장객 목표치 11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관람객은 물론 외국인 관람객도 꾸준히 늘고 있어 국제꽃박람회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8일 안면도꽃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金鍾求)에 따르면 전날까지 입장한 관람객은 공식적으로 113만8,054명으로 이미 당초 목표치 110만명을 초과달성한 상태다.

이 가운데 전날 외국인 680명이 입장한 것을 포함해 외국인 입장객 누계는 2만5,434명이 입장, 당초 외국인 유치목표인 2만2,000명도 가볍게 뛰어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람객 중에는 외국 화훼업계 관계자는 물론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 관광객, 미8군 장병과 그 가족, 해외 교민회 등이 총망라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한국유학생 그룹에는 충남대, 우송대, 청원대 등 국내 다수 대학들이 꽃박람회 관람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충남대 소속 중국인 유학생 30여명은 이날 오후 안면도꽃박람회을 찾아 관람행렬에 동참한 데이어 인근 꽃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흥겨운 시간을 갖는 모습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미연합사 소속 미군 장병 489명도 외국인 관람대열에 합세, 지난달 27일 43명이 첫 선발대를 시작으로 안면도꽃박람회장을 방문해 꽃 페스티발에 동참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9차례에 걸쳐 분산 방문하고 있다.

개장 초반부에 안면도 꽃박람회장을 찾았던 한미연합사 소속 로이 스미드 상병(23)은 "2년째 한국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많은 곳은 처음 본다"고 감탄사를 연발한 뒤, 특히 <꽃토피어리 숭례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다.

LA 한인회(회장 스칼렛 엄) 소속 재미 교포 21명도 꽃박 참관 대열에 동참하기는 같은 열기. 지난달 29일 안면도꽃박람회장을 찾아 화려한 꽃의 세계에 흠뻑 몰입됐던 이들에 이어 미주지역 한인회에서는 8일 20명이 참관하는 외에도, 시카고지역 60명, 뉴욕지역 30명 등 총 200여명이 순차적으로 안면도꽃박람회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일 폐장을 앞둔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외국인 관람객들의 관람편의를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25명과 통역 의전도우미 4명 등 총29명을 박람회장 종합안내소 등 곳곳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 담당 : 강재규(041-670-6128) | 등록일 : 2009.05.08)

[충청남도] 꽃박' 성공, 서해안지역 이미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 충남발전硏, 연구보고서 통해 '꽃박' 과 연계한 발전전략 제시

2009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꽃박'을 통한 연계 발전전략이 제시되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기획조정연구실장은 "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지역파급효과와 발전전략"이란 보고서에서 "국제꽃박람회는 국제 적 위상 제고,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수출확대, 대내외 관광객 증가 등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온다."라면서 "올해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서해안지역 이미지 전환의 기회로 활용, 태안을 비롯한 서해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과 육성으로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태안은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환경교육이 가능한 매우 의미 있는 장소다."라고 언급하면서 "환경생태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적 환경생태관광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2002년 '꽃박' 당시 박람회 기간에만 461만불의 화훼수출계약을 성사시켜 태안군 화훼산업의 국제교역 기회를 확대시키는 계기로 삼았던 전례를 들며 "태안 지역은 기존 농가의 화훼재배가 발달되어 있고 천리포수목원, 백합시험장 등 화훼산업 기반이 양호하다."고 전제하면서 "앞으로 화훼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화훼재배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화훼물류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등 꽃박람회를 계기로 태안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화훼산업을 집중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담당 : 정봉희(041-840-1123) | 등록일 : 2009.05.11)

[충청남도] 『금강 살리기사업』 금년 9월 착공한다

– 생태하천조성, 자전거길, 뱃길복원 등 강 중심 지역발전 도모

금강이 생태복원과 함께 백제문화유산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본격 추진된다.

11일(월)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지역 설명회에서 도는 금강을 ▲ 홍수방어(준설 0.5억㎥, 제방보강 97km), ▲ 용수확보 (보 3개소, 농업용저수지 개량 31개소) ▲ 생태복원(생태하천조성 197km, 영농금지 30.1㎢) ▲ 문화관광?레저(자전거길 204km, 뱃길복원 67km)사업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인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흐르는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공주·부여(백제)를 특화문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옛 뱃길복원과 수상레포츠 단지 등 강중심의 관광자원 발굴하고, ▲ 농림수산식품부는 특산품, 자연자원 등 연계한 테마 있는 명품 마을 조성과 강 주변에 IT, BT 등 첨단기술과 경관농업 등을 결합한 복합농업단지 조성하고, ▲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리적 입지, 지역산업, 문화자산 등 지역 특성과 수변공간을 활용한 도시정비로 기존 도시를 금강살리기와 연계해 정비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점용경작지 보상(34천건, 64백만㎡)은 법이 정한 범위 내 최대한 보상하고 '09년 상반기 중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사업에 한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확대해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여주기로 했다.

11일 현재 충남도가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 건의한 금강살리기 사업 총 26건 중 공주 곰나루, 청벽지구 하천환경개선사업 등 9건이 반영되고, 천내·저곡지구 등 14건이 조정반영, 신성리갈대밭 환경개선사업 등 2건은 검토 중, 금강 철새도래지개선사업 1건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5월말까지 금강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9월에 공사에 착공하고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담당 : 치수방재과 박승태(041-250-2394) | 등록일 : 2009.05.11)

[충청남도] 충남관광 해외로 해외로... 중동지역TV 홍보에 박차

- 12일 이스라엘 Good Life TV팀 부여군 일원 홍보 촬영

충남도가 중동지역 해외관광 홍보에 나섰다.

도는 12일 이스라엘 유력채널인 Good Life TV를 초청해 부여 고려인삼창, 삼계탕, 웰빙두부 만들기 등 웰빙음식과 백제역사재현단지 등 충남 관광자원 현지촬영 안내 및 홍보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촬영에서는 한국인삼공사 부여인삼창, 삼계탕 요리 음식 및 웰빙 두부 만들기 제조과정 등 외국 관광객이 선호하는 한국음식과 문화 등을 상세하게 방송에 담아 중동지역에 충남도 관광자원을 소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지역의 충남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충남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백제문화제, 인삼?머드축제, 온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의 해외홍보 외연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스라엘 Good Life TV의 충남도 방한은 충남도와 한국 관광공사가 공동으로 해외관광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아랍에미미레이트 Al Aan TV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충청남도, 담당 : 관광산업과 이권희(041-251-2328) | 등록일 : 2009.05.12)

[경상남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울경 3개 시도 한목소리

- 경남도, 6월 까지 후보지 선정 평가지표 작성 주력

정부에서는 의료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전국 10여개 광역지자체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 부울경 공동 유치 노력으로 결실 기대

이에 동남권 3개 시도는 지난 2007년도부터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동남권 공동유치에 합의하고, 동남권 의료인을 비롯한 산,학,연,관을 주축으로 공동

유치 T/F팀을 구성하여 부울경의 중심인 양산시를 유치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008년도에는 울산에서 개최된 부울경 발전협의회에서 3개 시도지사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동남권 공동유치에 합의했고, 부산 울산 경남 각계 각층의 100인으로 구성된 공동유치위원회(위원장 오근섭 양산시장, 김인세 부산대 총장, 이경호 인제대 총장, 김도연 울산대 총장 4인 공동)를 출범한데 이어, 실무위원회(위원장 박주성 부산대 공대학장)를 구성하여 공동 유치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동안 부울경 공동유치위원회에서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대규모 주민을 동원한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많은 선동적 활동과 정치권 접촉 등 정부에 부담을 주는 활동은 최대한 줄이면서 동남권 소재 대학의 교수를 비롯해서 부산, 울산, 경남발전연구원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특화된 제안서 작성에 주력해 왔다.

지난 4월 27일 정부에서도 후보지 선정방식을 비공모 방식으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부울경이 준비해온 유치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는 평이다.

앞으로 동남권이 6월 중에 각 시도가 정부에 제출키로 되어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 대비해 특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간다면 타 지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해외 우수 의료연구기관 유치활동 적극 전개

또한, 지난 2007년부터 해외 우수 연구기관 및 자매도시인 미국 메릴랜드주와 존슨 홉킨스 대학 등을 대상으로 MOU 체결을 추진함과 아울러 부울경 소재 병원장, 대학의 의과대학장, 의료산업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모임을 갖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적 유치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동남권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유치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강점과 펀드 조성 및 기금마련 등이 쉬울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 등이 참여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설립에 있어서도 어느 시도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도권 다음으로 의료산업 인프라 최고

의료산업 인프라 측면을 비교하면 동남권의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의료인력, 의료기관, 의료기업체 현황은 수도권 다음으로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다

부산대학교병원의 허혈조직연구센터(MRC), 부산지놈센터, 사이클로트론연구센터, 동아대학교병원의 암분자치료연구센터 신의학산업화GLP센터, 동의의료원의 사상체질자동화기기연구센터, 한방임상시험센터를 비롯해서 인제대 백병원의 지역임상시험센터, 동남권 원자력한의원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울산정밀화학센터, 울산대학교의 생의과학연구소, 경남의 김해의생명센터, 바이오21센터, 로봇센터, 정밀기기센터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토대로 올 초부터 조용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온 동남권 3개 시·도는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경남도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은 "우리지역의 강점인 800만 시·도민의 의료수요처와 정주,

교통여건의 우수성, 그리고 부울경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개발사업 최초 모델로 추진하는 장점을 비롯해서 3개 시도 분담 투자 시 폭넓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한 점,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의료기관, 의료인력, 의료기업체가 가장 많은 점 등을 달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양산지역이 최적지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반드시 우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6월 중에 입지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동남권에서는 동남권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세제 등 입지지원, 투자지원, 정주여건의 개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의회 차원에서는 유치결의문을 채택 중앙 요로에 유치 당위성 등을 건의함과 아울러, 현재 의원 발의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경상남도, 담당 : 남해안경제실 미래산업과 김효영(055-211-2733) | 등록일 : 2009.05.09)

[전라북도] 『수학여행! 전북코스 굳히기 본격돌입』

- 수도권 초등학교 교장단, 학습코스 팸투어 실시

전라북도가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자원을 전북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수학여행 전북 테마코스 굳히기』팸투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라북도는 6일, 지난 4월 서울 동작교육청 중등학교 교장단 39명이 문화유적 및 체험학습 코스를 팸투어 한데 이어, 2차로 서울교육청 초등학교 교장단 35명이 7일부터 9일까지 6개시군 8개 유적지 등 어린이에 맞는 수학여행 학습상품에 대한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팸투어 계획에 의하면, 수도권지역의 수학여행 자원은 연간 80여만명으로 지난해 23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팸투어 활동을 추진한 결과 30%가 증가했다며, 금년에는『전북 학습여행 테마코스 굳히기』를 위하여 초·중등학교를 구별하여 팸투어를 시행함은 물론 교장·교감·전담교사를 분리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학여행 상품으로 연계,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교장단에게 선보일 수학여행코스는 지난 중등학교 교장단에 홍보한 남~북축의 익산/전주/임실/남원지역 수학여행코스와 달리 동~서축인 무주/진안/임실/김제/부안/익산 지역의 반디랜드/마이산/필봉농악체험/금산사/새만금방조제/미륵사지 등으로써 관내 전 시군이 고루 수학여행코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이번 교장단 팸투어를 계기로 하여 지난해 수학여행 팸투어단에서 제안한 중저가 다중 숙박시설 확충, 대형차량 주차공간 확보, 체험학습 및 광역해설 개발 등 수학여행 불편사항에 대한 단기적 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시 선 보임으로써 수학여행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에 의하면 도내를 찾는 수학여행 학생수는 연간 44천여명으로 이중 수도권이 17천여명을 차지하고 있어「수도권지역 공략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향후 21C 문화관광 시대를 활짝 열 새만금을 수학여행 관광지로써 새롭게 부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담당 : 관광산업과 이영(063-280-3393) | 등록일 : 2009.05.06)

[전라북도] 시너지 효과 유도하는 전북관광 마케팅!

– 관광공사 및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임직원 초청 팸투어 추진

–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등 협력사업 추진

– 한국방문의해 2011년(GREEN) 테마에 '새만금' 선정, 해외 집중 홍보 추진

전라북도는 관광상품 개발, 국내·외관광객 유치, 온-오프라인 상 관광홍보 마케팅, 국제행사 유치 등 관광공사와 협력사업 추진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임직원을 초청, 새만금 방조제와 연계한 전라북도 현지 팸투어를 실시(5. 8)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방문의해 위원회와도 『한국방문의해』 2011년(GREEN) 테마의 새만금 선정과 관련 해외 집중 홍보와 '국제 자전거대회' 새만금 유치를 위해 임직원을 초청, 팸투어를 실시(5.8~9)할 예정이다.

금번 팸투어의 목적은 현재 우리나라 관광수요 창출의 핵심 기관인 두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새만금 등 전북 현지 팸투어를 실시, 현재적·잠재적 관광자원 현장을 직접 체험토록 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증진하고자 함에 있다.

전라북도는 팸투어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상호 윈-윈 하는 파트너십 및 활발한 인적 네트워크와 업무 교류체제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관광산업 시책 각 분야에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자들의 주요 방문지역은 1일차에는 새만금 방조제와 김제 금산사 및 전주한옥마을이며, 2일차에는 고창 읍성·고인돌유적지·선운사 및 청보리밭 축제장 등으로 빼어난 전북 관광자원의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를 통해서 나타난 방문지역의 관광자원과 코스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점은 체계적으로 보완하여 전라북도만의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금번 팸투어는 '100년 미래의 장' 새만금 관광을 비롯한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과 실질적이고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담당 : 관광산업과 박종섭(063-280-3333) | 등록일 : 2009.05.08)

[전라북도] 이제는 전북이다 중국·일본 관광객을 붙들어라

– 『한중 노인교류 관광상품개발』 결실 도내 첫 중국 노인관광단 유치

– 최근 일본현지여행사 전북관광상품 개발 위해 연이어 전북방문

전라북도가 '09년 해외홍보 마케팅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한-중 노인관광교류 상품개발』과 『관음성지연계 전북관광상품개발』이 본격 추진되어 도내에 첫 중국 노인관광단이 방문한 가운데 일본여행사를 상대로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1일, 인천항을 통해 중국 북경지역 노인 35명이 2박3일 일정으로 전라북도를 방문, 전주 노인복지회관과 한옥마을, 진안 마이산을 들려 한국 노인들의 여가 생활과 전통문화를 탐방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관음성지연계 전북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일본여행사와 언론인을 초청 3박 4일 일정으로 도내 6개 시군의 관광지를 탐방하는 팸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중국 노인교류 관광객 방문과 일본 여행사 팸투어는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의한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가 중국전담여행사와 동경출장소를 통하여 추진한 결실로 앞으로 군산항을 통해 중국 노인관광단의 지속적인 유치가 예상되고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음성지연계 상품 개발이 연이어 이어질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한중 노인교류 관광상품』과 『관음성지연계 전북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 전담여행사를 순회 방문하여 인센티브 지원과 지리적 여건 등 전라북도 관광의 유리한 점을 중점 부각시켜 한중 노인교류 관광상품의 첫 결실을 수확하게 되었고 관음성지 연계 상품개발을 위해 일본 여행사를 초청 팸투어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 현지여행사와 중국전담여행사가 공동으로 군산항을 통해 매월 20~30명 단위로 꾸준히 중국 노인관광객을 송출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중국인 노인관광객이 대거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인을 타겟으로 하는 상품개발을 위해 지난 4월 일본여행사 대표 14명의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상품기획자의 팸투어를 통해 관음성지연계 관광상품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방조제의 개통에 맞추어 국가별·계층별로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을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여행업체와 관광공사와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국과 일본에 이어 동남아 지역까지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담당 : 관광산업과 이영(063-280-3393) | 등록일 : 2009.05.11)

[전라북도] 새만금관광해설 민간전문가 양성

-새만금 등 우리지역 알림이 『전북문화관광해설사』 교육

- 해설사를 통한 관광전북의 이미지개선과 관광객 유치기대

전라북도는 도내 역사문화유적지 등 주요명소에서 관광해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190명을 대상으로 관광해설이론 및 새만금 등 현장체험 학습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지역 문화관광 최 일선의 알림이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목적으로 신규양성반과 정기보수 교육반으로 나누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신규양성(5.11~5.28, 16일간 63명) 〔이론〕 전주역사박물관 강당
〔현장체험학습〕 새만금 등 14시군 역사문화유적지
◦ 정기보수(6.01~6.13, 11일간 127명) 〔이론〕 국립전주박물관 강당
〔현장체험학습〕 새만금 등 태안반도 일원 해양문화유적지 중심

전북도가 밝힌 교육과정에 의하면, 실무해설에 필요한 현장 대처능력의 배양은 물론 해양문화권의 정점에 위치한 새만금권과 익산미륵사지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이론교육과 현장학습

을 병행한다는 방침아래 신규교육은 외래 관광객에게 지역문화홍보와 안내 그리고 해설사로서의 서비스 자세를 갖추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초 소양교육과 함께 새만금 등 도내 전통문화유적지를 탐방하는 현장학습에 역점을 두며 기존 근무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자질향상을 위해 새만금관광 개발방안, 백제의 사리장엄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정과 새만금 중심의 전북지역 해양사와 해양문화에 대하여 비교 성찰할 수 있는 안면도, 태안반도 일원을 현장체험 학습을 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해설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이수 후 이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새만금 지역 등 64개소 도내 유명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전문지식과 숙련된 해설기법으로 전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유산과 자연생태를 알리는 "우리지역 알림이"로서 역할을 다하게 된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새만금 등 우리 도의 문화유적 및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재미있는 문화관광체험의 기회를 향유하게 되어 결국 관광전북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유치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라북도, 담당 : 관광산업과 이영(063-280-3393) | 등록일 : 2009.05.11)

[전라북도] "꽃마차 타러 오세요"

- 농업기술원 과수, 채소 등 시험포장 개방, 어린이에게 농업의 중요성 홍보

- 허브식물 심기,전통떡 만들기, 꽃마차 타기등 다양한 체험 놀이 실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내 유치원 및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해 생명산업인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3일부터 3일간 새로운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영철)은 이번에 운영되는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에는 조랑말과 꽃마차를 전주 기전대학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꽃마차 타기 체험을 실시하고 우리원 화훼자원연구소에서 길러낸 허브식물 2,000점을 아이들이 직접 심어서 가져가도록 하여 어린이에게 농심을 심어주며 「꿈나무 체험 학습장」에 목화, 아주까리 등 희귀 농작물과 유채,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 오미자, 산머루, 박과 작물을 심어 아치형 터널을 만들고 우리의 전통놀이인 투호, 널뛰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우리조상의 얼을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험 첫날은 "꿈나무 어린이 음식학교"를 개설하여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떡 「꽃산병」 만들기와 떡살무늬나무로 수레바퀴 문양의 「차륜병」 떡 만들기 체험을 통해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와 무병장수 빗살무늬 등 떡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알려 줄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업 홍보관에는 아이들의 관찰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 동영상을 설치하고 우리도의 논, 밭토양도와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우리도의 특산품, 등 전시관 관람 및 농업방송실 관람과 함께 첨단농업연구시설 포장 견학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운영되며 체험학습장 참가자에게는 상세한 안내와 식수, 야외 음향장비 등 편의를 제공 할 계획이다.

한편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07년도에 새롭게 조성한 "꿈나무체험학습장"이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도내 유치원 및 학교 "자연 학습의

날"에 농업기술원 방문 신청이 쇄도하여 농업과 농촌, 농업기술원 홍보에 큰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라북도, 담당 :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 김동필(063-839-0408) | 등록일 : 2009.05.12)

[전라남도] 전남-제주,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 공동 추진

– 6일 업무협약…국제요트대회 등 레저 · 해양관광 개발 상호 협력키로

전라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해양관광 및 해양스포츠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요트대회가 공동 추진된다.

전남도는 6일 오전 제주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김태환 제주지사, 관련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시대를 맞아 양도의 공동자산인 온화한 기후, 청정해역, 아름다운 섬, 해양문화 등을 활용한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양 도는 해양문화 및 관광,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저용품·장비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이와 관련한 공동연구프로그램을 개발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해양관광 및 해양스포츠기반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제 요트대회를 양도가 순회 개최하고, 크루즈 및 요트관광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올해는 목포를 출발해 화원반도, 진도 조도군도, 추자도, 제주를 항해하는 1박2일 코스의 대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르고 경비를 공동 부담키로 했다.

이어 문화예술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델픽대회, 2010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을 비롯한 국제행사를 활용한 해양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간 해양관광 업무협약으로 이어져 해양관광 활성화 및 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준영 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주 5일근무제 확대 등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제주와의 업무협약은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양관광 상품 개발 및 세계수준의 국제해양레저대회 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도는 지난 2007년 21세기 연륙 교통수단 건설을 위한 전남~제주 해저터널 건설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제출해 중앙정부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전라남도, 담당 : 스포츠산업과(061-286-5543) | 등록일 : 2009.05.06)

[전라남도] 대불산단에 낭만이 있는 쾌적한 숲 조성

– 전남도, 24억원 투입해 해남 화원간 도로변에 숲 · 가로공원 등 추진

영암 대불산단 주변에 낭만이 있는 쾌적한 가로숲 공원이 조성된다.

전라남도는 영암 대불산단~해남 화원 대한조선간 도로변 산림을 숲가꾸기, 가로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해 낭만이 있고 쾌적한 숲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숲 정비계획에는 2010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24억원을 투입해 숲가꾸기 430ha, 가로공

원 6개소, 가로수 식재 3km, 나무심기 45ha 등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 예정지는 지난 1996년 대불산업단지 완공 이후 삼호조선과 대한조선 등 조선 관련업체 입주로 교통량 증가와 외래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시권 산림은 덩굴류와 잡관목류가 번성해 자연경관을 헤치고 숲의 활력이 떨어져 주변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경관숲 조성이 요구돼온 곳이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소득과장은 "입주기업 직원의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키고 주변주민들의 쾌적성과 시각적 경관성을 높여주기 위해 새로운 숲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주변에 주민·기업이 함께 하는 숲을 조성하는 협력체계를 더욱 확산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산림소득과(063-286-6640) | 등록일 : 2009.05.08)

[전라남도] 전남 수학여행객 증가로 주요 숙박시설 동나

– 서울 신암중 등 올 상반기 190개 학교 9만여명…전년比 12% 급증

전라남도가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큰 인기를 끌면서 올 상반기 도내 대규모로 수용 가능한 주요 숙박시설 예약이 완료되는 등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서울 신암중학교를 비롯한 80여개교에서 전남을 수학여행 코스로 정해 주요 관광지를 다녀갔고 앞으로 6월 말까지 110여개 학교 총 9만여명이 다녀갈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160개 학교 8만명보다 12%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6회에 걸쳐 실시한 수학여행 담당교사 초청 답사 여행, 초·중·고 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실시한 도립국악단 공연과 '2008년 광주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남도 관광지를 집중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도내 주요 숙박시설인 구례 송원리조트, 지리산제일온천호텔, 화순 금호리조트 등은 상반기 예약 뿐만 아니라 하반기 수학여행 성수기인 9~10월에도 벌써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전남지역 주요 수학여행 선호지는 소쇄원·가사문학관·송광사·운주사·고인돌공원·화엄사·백양사 등 역사문화 유적지와 순천만·죽녹원·보성 녹차밭·향일암·오동도·섬진강 기차마을 등 자연생태 관광지, 담양 송학박물관·낙안읍성 등 체험 관광지, 광양제철 등이다.

명창환 전남도 관광정책과장은 "지난해 교과서에 나오는 전남도 수학여행 코스를 발간해 수도권, 영남권 학교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미래의 잠재적 관광고객인 학생들의 수학여행 유치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063-286-5221) | 등록일 : 2009.05.08)

[전라남도] 신안에 해양펜션·요트장 등 해양관광기반 구축

– 전남도, 11일 (주)대영종합레저 · 루성 등과 투자협약…수산물 판로 확대

전라남도가 다도해 그림 같은 섬에 해양펜션과 에너지파크, 요트계류장 등 해양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완도 전복과 장흥 무산김 등 수산 특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협약을 잇

따라 체결했다.

전라남도는 11일 오전 도청 정약용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박우량 신안군수, 대한귀 (주)대영종합레저 대표, 권영식 (주)루성 대표, 임홍빈·강성종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69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투자협약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대영종합레저는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굴도에 441억원을 투자해 7만9천㎡부지에 펜션 18동(65실)과 요트계류장, 에너지파크, 바다낚시터 음식타운 등을 조성한다.

다도해의 그림 같은 섬 등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는 이번 투자가 관광객 기대에 부응하고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루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업체로 250억규모의 유통협약을 체결, 오는 7월 개장하는 씨푸드 백화점(부산 해운대구)에 전남산 명품 수산물인 완도 전복과 장흥 무산김 등 다양한 품목의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입점 납품한다.

박준영 도지사는 "그동안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졌음에도 관광지로 개발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자원들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훌륭한 자원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전남의 다도해가 국내 최고 명소가 되고 지역 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어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당 : 해양항만과(063-286-6920) | 등록일 : 2009.05.11)

[전라남도] 여수 앞바다에 거북선이 뜬다

– 박지사, 12일 여수박람회 정부지원위에서 2010년 운항 계획 발표

'2010년 여수 앞바다에 거북선형 유람선이 뜬다.'

박준영 전라남도지사는 12일 여수시에서 개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에서 "박람회를 홍보하고 해양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알릴 '거북선형 유람선'을 2010년 여수에서 운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지사는 이날 위원회에서 "여수는 거북선을 최초로 만들었던 '선소'와 조선 수군의 중심인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거북선 유람선을 건조할 계획"이라며 "여수의 명물이 돼 여수시민과 모든 국민, 관광객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특색있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여수시민들이 거북선을 건조한 선소가 있는 여수에 거북선 유람선이 운항돼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해 전남도에 수차례 건의해온데 따른 것으로 국비와 도비 44억원을 투입해 건조키로 한 것이다. 내년 관광 성수기 이전인 3월 그 위용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북선형 유람선'은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는 각종 행사에서 박람회 홍보대사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깨끗한 바다와 연안, 섬 등을 오갈 거북선 모양의 유람선은 여수와 가장 어울리는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담당 : 관광정책과(063-286-5230) | 등록일 : 2009.05.12)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분석과 향후 추진방향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09년 4월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 관광사업은 총 60개 사업에 17조 6,136억원 투자규모이며 유형별 추진현황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31개 사업 11조 1,521억원(63.3%), 유원지 및 휴양업 조성사업은 13개 사업 4조 4,069억원(25.0%), 골프장 조성사업은 16개 사업 2조 546억원(11.7%)으로 나타나고 있다.

※ 유형별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총괄)

구 분	합 계(개, 억원)		사업승인(개, 억원)		예정자(개, 억원)	
	사업수	투자규모	사업수	투자규모	사업수	투자규모
계	60	176,136	49	151,066	11	25,070
관광지 및 관광단지	31	111,521	25	98,524	6	12,997
유원지, 휴양업 등	13	44,069	11	35,427	2	8,642
골 프 장	16	20,546	13	17,115	3	3,431

20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은 44개사업 12조 2,773억원으로써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5년까지(4년간) 14개사업 3조 3,609억원(27.4%) 규모였으나,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부터 2009년 4월 현재까지(4년간) 30개사업 8조 9,164억원(72.6%) 규모로써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기간 및 투자규모 대비 265%이상 급증한 것이다.

※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의한 투자규모
- 2002 ~ 2005 : 14개사업 33,609억원/4년 ≒ 8,402억원/년
- 2006 ~ 2009. 4 : 30개사업 89,164/4년 ≒ 22,291억원/년

이처럼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민간투자 관광개발사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가치 및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투자성공 기대감, 투자인센티브 확대, 개별허가 방식 전면 도입 및 인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효과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예정자 지정된 60개 관광개발사업(17조 6,136억원) 중 42개 사업(12조 5,083억원)이 착공(등록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유형별·투자규모별 착공현황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31개 사업(11조 1,521억원) 중 79.1%인 26개 사업 (8조 8,181억원)이 착공 및 공사추진, 유원지 및 휴양업은 13개 사업(4조 4,069억원) 중 52.6%인 3개 사업(2조 3,201억원)이 착공 및 공사추진, 골프장은 16개 사업(2조 546억원) 중 66.7%인 13개 사업(1조 3,666억원)이 등록 및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 : 12개 사업 1조 3,420억원, 착공 : 1개 사업 246억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공 및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정상 추진을 유도해 나가고 절차이행중인 18개 사업(4조 8,053억원)에 대하여 조기 착공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절차 이행중인 관광개발 사업현황 : 18개 사업 4조 8,053억원
- 예정자 지정 및 절차이행 : 11개 사업 2조 5,070억원
- 착공준비 중 : 7개 사업 2조 2,983억원

○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관광개발사업 지원 및 조기착공 방안
- 추진중인 사업 지원방안 :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재정지원,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별 PM활성화, 기업인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정례화 등
- 절차이행 중인 사업 조기 인허가 완료 : 롯데관광단지, 한라힐링파크, 헬스케어타운 등
- 관광3법 일괄이양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차별화된 관광단지 투자 기반조성 적극추진 : 교육 및 의료시설 도입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일괄처리팀 변영선(064-710-3791) | 등록일 : 2009.05.06)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 상품 Upgrade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활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광협회는 지난해 공모를 통하여 확정된 의료관광 상품을 Upgrade하여 공격적인 해외환자 유치 활동을 적극 펴 나가기로 했다.

- 양방 : 2개 기관 3개 상품(검진+Wellness, 건강검진, 비만)
- 한방 : 3개 기관 3개 상품(비만, 피부병)

Upgrade 된 사항은 지금까지 특정참여 방식에서 개방된 통합참여 방식으로 전환하여 도내 모든 의료기관과 도·내외 여행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금년도 3월에 완공된 제주대학교 병원 암센터 개설과 관련 특화된 지역 암패키지 상품을 의료관광 상품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금년도 의료법 개정으로 5월부터 전국적으로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제주의 휴양형 의료관광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시 지원되는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확대하였다.

- 기존 : 도내의료기관, 도내여행사 → 확대 : 도내의료기관, 도내·외여행사
- 지원액 : 환자 1인당 3만원(가족 동반 시 6만원)

또한, 작년도 의료관광 상품 정보지에 포함되지 아니했던 "아시아의 의료를 이끄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제주가 있다" 는 슬로건을 정하였고 의료관광객이 상품 정보를 소상히 알고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상품별(의료관광 상품 세부항목 추가 및 세분화, 한방분야 효과분석, 국제수가(비용)제시, 투숙호텔 지정, 환자 소개 수수료)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

문화하였다.

이번 Upgrade 된 의료관광 상품을 도내·외에 널리 알려 나가기 위해 의료관광 상품 정보 책자 2,000부(국문, 영문, 일문, 중문)를 제작하여 6월중에 중국 대형여행사, 에이전시 등 모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상품 해외 합동설명회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양질의 의료관광을 위하여 금번에 Upgrade 한 의료관광 상품에 대하여는 홍보물 제작비, 마케팅 활동비, One-Stop Service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금년도 5월중에 일본지역의 의료잡지사 기자, 대형여행사, 에이전시 등을 대상으로 초청 팸투어를 실시, 제주 의료관광 발전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현장체험을 통한 제주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병원 내 의료진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 외국인 환자에게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09. 5월 중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주도 인력개발원 교육과정에 의료관광 코디네이터(통역인력)양성교육 과정 신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국제박람회, 의료관련 박람회, 기타 대형 행사시에도 적극 참석하는 등 공격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의료산업 투자 설명회 개최, 국내·외 우수 의료기관유치를 통해 선진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제주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교육의료사업팀 전병주(064-710-2445) | 등록일 : 2009.05.06)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초가집, 한옥체험가옥으로 활용!

전국적으로 한옥의 활용과 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한옥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숙박체험가옥의 사전준비가 마무리 되고 시범운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구)남제주군 당시 매입·정비하여 빈집으로 관리되고 있던 초가집 6가구 6동을 문화재청이 마련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새롭게 재단장 하였다.

국내 타 지역에서 기와집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이나 숙박시설, 상업시설로 사용하는 사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초가집의 활용은 아직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초가집은 좁고 불편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선입견이 시도자체를 꺼리게 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울타리내의 전통적 가옥배치와 구조(뼈대), 평면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현대인의 생활양식과 문화체험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전통적이라는 느낌이 오감(五感)을 통해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통초가의 외형, 올레, 우영, 안거리와 밖거리의 구성 등 복합적인 정비에 노력하였다.

금번 운영되는 가옥 6가구 6동은 초가집이 획일화된 가옥이 아니었음을 감안하여 개별 가옥마다 규모, 내부형태, 시설 등이 가옥별로 독특한 느낌과 이미지를 갖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울타리내 안거리 내부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반면, 밖거리나 목거리는 전통형태 원형을 유지하여 향후 전통방식으로의 체험수요가 증대할 것을 대비하는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성읍민속마을 가옥 정비는 체험가옥으로의 활용이라는 측면 외에 체류형 관광객의 증대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 그동안 불편한 생활을 감수한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향후 성읍민속마을의 문화재적 가치회복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마을내 초가의 관리 및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성읍민속마을의 보존·전승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변상인(064-760-2501) | 등록일 : 2009.05.07)

[제주특별자치도] 한-아센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세계자연유산 홍보의 장으로

한-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제주 세계자연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가 펼쳐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본부장 고상진)는 오는 6월 1일~2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11개국 정상 등 총 3,000여명의 외빈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제주 재방문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자연유산 제주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비경을 담은 사진전을 행사기간 도내 4개소에서 동시 개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1개소를 비롯해 제주의 관문인 제주공항, 제주항 2개소에 대형 사진 총 75점을 전시하고, 한-세안 기간 제주국제문화관광 EXPO가 열리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도 제주 세계자연유산 사진전을 동시 개최한다. 또한 각국의 외신기자 등 총 500여 명의 기자단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문과 영문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영상을 담은 DVD도 5월 중 신규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세안 특별정상회담을 대비하여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등 유산지구에 대한 탐방로 정비를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5월과 6월 집중적인 청결운동을 벌여 방문객들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 자연유산총괄관리부(064-710-6657) | 등록일 : 2009.05.11)

[입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3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해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

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통합지침 제도 도입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책지침과 계획지침으로 구분되는 통합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변경과 도시(군)관리계획변경절차의 연계강화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

(2)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의 해제를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여 토지이용 절차를 간소화함.

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마.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해제를 하도록 의무화 함.

바.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개편

(1)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구역의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분토록 함.

(2) 준산업단지·관광단지,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산업기능의 결합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을 이전·재배치하는 등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함.

(3) 지구단위계획은 필요한 사항만 수립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용도지구의 대체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추가함.

사.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일원화

종래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로 처리되던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농림어업의 보전·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재분류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의 유사성에 맞추어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재분류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하는 근거 마련함.

자.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폐지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하기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 전화번호 02)2110-8191,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 우편번호 : 427-712
- 전 화 : 02-2110-8191
- 팩 스 : 02-503-9181

(국토해양부, 담당 : 도시정책과장(02-2110-8191) | 예고일자: 2009.05.08)

[해외동향] 日, 올 여름휴가에는 디즈니랜드나 가볼까

– 한 번 보면 자꾸 보고 싶게 만드는 마법의 비밀

–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닌 끊임없이 진화하는 미래형 어뮤즈먼트

○ 도쿄 디즈니랜드의 매력은 한 번 찾아온 고객에게 일종의 마법을 걸어 자꾸 보고 싶게 만들어 고객을 디즈니랜드의 광팬으로 만든다는 데에 있음.

○ 2009년 4월 15일 도쿄 디즈니랜드의 새로운 놀이기구(=어트랙션)인 Monsters, INC-Ride &Go Seek의 오픈을 계기로 개장 25주년을 지났음에도 인기가 줄지 않는 디즈니랜드의 성공 비결을 알아봄.

□ 오키나와 관광객 4배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디즈니랜드의 위상

○ 누적 입장객 수 4억6000만 명으로 일본의 리조트부문 1위를 차지하며, 2위와 3위를 합친 수에 맞먹는 수준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임.

○ 이러한 성장세는 일본경제 및 세계경기가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주요 지표로 알아보는 디즈니랜드 위상>

(단위 : 만 명, 억 엔)

누적 입장객 수		연간 입장객 수		매상고	
디즈니랜드	46,366	디즈니랜드	2,722	디즈니랜드	2,868
우에노동물원	33,497	프로야구	2,164	유니버셜	731
J리그(축구)	16,000	오키나와관광객	604	하우스텐보	184

○ 음료와 상품 판매고 기준으로 1550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어 최대 쇼핑센터로서의 입지도 새롭게 구축

- 이는 단순히 놀이공원의 컨셉에서 확장해 그 자체가 거대한 쇼핑몰로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주요 백화점 및 쇼핑몰과 비교한 디즈니랜드의 음료·물품 매출액>

(단위 : 억 엔)

구분	디즈니랜드	마쯔야백화점 나고야지점	다카시마쇼핑몰 타마가와지점	한큐 니시노마야가든
매출액	1,550	,1231	1,007	600

□ 끊임없는 변화가 지속적인 성장의 비결

○ 새롭게 개장한 어트랙션인 '몬스터'는 디즈니랜드의 치밀한 홍보 전략에 힘입어 2002년에 개봉한 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네 DVD 렌탈숍에서는 디즈니사가 제작한 영화인 '몬스터' 대여가 때아닌 호황을 맞을 정도였음.

○ 디즈니랜드에서는 새로운 어트랙션 개발을 위해 영화 개봉 직후인 2003년부터 6년에 걸친 철저한 준비 끝에 개장했으며, 그 결과 성공적인 오픈을 할 수 있었음.

- 도쿄에 사는 40세 남성은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 기다리는 열성을 보였으며, 단 4분간의 어트랙션을 즐기기 위해 5시간이 넘는 줄을 기다린 다음에도 만족스런 얼굴로 또 줄을 서고 싶다는 고객들의 반응에 디즈니 관계자들도 놀랐다는 후문임.

○ 디즈니랜드에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열성을 보이는 열광적인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도쿄 근교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은 올해에만 32번째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작년에는 모두 98번을 갔는데 매번 친절한 응대 태도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만족감을 표시

- 이는 일정 비용만 내면 1년간 몇 번이라도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것이 가능한 티켓정책 때문인데, 이러한 패스포드를 보유한 고객의 숫자는 약 7만2000명에 달함.

○ 한번 방문한 고객이 싫증을 내지 않고 또 방문하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끊임없는 변화 능력이 디즈니랜드의 지속적인 성장 비결임.

- 1983년 개장 시 32개의 어트랙션은 41개로 증가했으며, 놀이기구 외에도 2000년, 신개념 쇼핑몰인 익스피어리를 오픈했고 2001년에는 성인 취향의 디즈니 씨를 개장했으며, 2008년에는 디즈니 호텔을 시작함.

□ 고객의 모습을 잘 보면 미래가 보인다

○ 우에니시 쿄우이치로 사장(1958년생)은 이러한 성장에 만족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성장은 25주년 기념 특수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

- 재방문률 95% 이상이라는 경이적인 기록도 뒤집어 보면 신규고객이 5%에 불과하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으며, 관람객의 70% 이상이 관동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

○ 아울러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디즈니랜드 총 내방객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을 방문하는 8명 중 1명이 방문하는 것에 해당(2007년 백만 명 초과 기록 달성)

- 실제로 디즈니랜드를 방문한 미국인(10세)은 미국 디즈니랜드보다 세세한 부분까지 더 생동감있게 구성돼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

○ 디즈니랜드 사장은 과거에는 대형 어트랙션을 만드는 것만으로 고객을 모으는 것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현실 세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고 말함. 그에 대한 해답은 관심을 가지고 고객의 일거

수 일투족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함.

출처 : 니케이 마케팅 저널

(KOTRA | 등록일: 2009.05.07)

[해외동향] 크로아티아 관광산업 동향

크로아티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 3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3.9%가 줄어든 105,520명으로 지난 2월의 -12.2% 보다 악화됨.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숙박수는 39% 감소한 272,395로 2월의 -12.5% 보다 대폭 줄어듦.

2009년 1/4분기 외국인 관광객은 228,491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 감소했으며, 외국인 관광객 숙박수는 전년 대비 21.6% 줄어든 595,326임. 올해 1/4분기 내외국 관광객 총수는 478,829명으로 14.3% 줄어들었으며, 내외국 관광객 숙박수는 16.7% 감소한 1,194,504임.

이상의 관광객 감소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경기 침체 영향으로 관광시장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일부 크로아티아 경제전문가는 2009년 관광수익이 2008년에 비해 5% 감소될 경우 자체 소화가 가능하지만, 15-20% 감소 시 중앙은행의 환율 안정정책이 타격 받고 재정적자가 심각화되는 등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

이와 관련, 5.4(월) Damir Bajs 크로아티아 관광장관은 현재 관광객 예약 저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800만 유로의 예산을 들여 오스트리아, 독일, 이태리, 체코, 슬로베니아 등 인근국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광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출처 : 주크로아티아대사관

(외교통상부 | 등록일 : 2009.05.12)

[협회동향] '제주국제문화관광 EXPO, 5월 29일부터 개막

– 30개국 초대 푸짐한 잔칫상 다채로운 관광지 만나 볼까

경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의 관광 명소는 어딜까. 제주도 관광이 제일 아닐까. 비행기 타고 기분도 내며…

이렇듯 올 들어 제주를 찾는 발길이 늘고 있는 가운데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의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세계 30개국이 참가하는 '제주국제문화관광 EXPO(World Culture And Travel EXPO)'가 5월 29일 부터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개막된다.

이번 박람회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아세안 10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가 참여해 자국의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게 된다.

행사장은 ▲지자체, 일반 여행관련 업체 등이 참여하는 국내홍보관 ▲아세안 홍보관 ▲주한

외국관광청, 대사관 등이 참가해 자국을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펼치는 해외홍보관 ▲세계의 특색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살 수 있는 세계풍물관 ▲제주 문화체험관 등 총 30여개국 250여개 부스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약간의 일정 조정을 통해 부담 없이 '제주국제문화관광 EXPO' 관람의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박람회 기간 중 주목되는 것은 세계인의 시선이 몰리는 제주에 대한 관광정보를 쉽게 얻어 갈 수 있는 제주문화체험관이다.

제주문화체험관에서는 '느림'의 미학을 즐길 수 있는 제주 올레길 걷기, 제주 전통노동복인 갈옷 만들기, 초가집 줄 놓기 체험 등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또 중앙 무대에는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전통 민속공연을 펼치고, 맛있고 다양한 세계 전통음식으로 관람객들의 시각과 미각을 사로잡을 세계음식페스티벌, 주한 외교사절의 한복 패션쇼도 진행된다. 특히 제주도관광협회는 제주 전통과 삶의 애환이 담긴 제주 전래가요 공연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국제문화관광 EXPO'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방문의해 위원회가 주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코트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한국관광공사, 농협중앙회가 후원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7시까지며, 무료입장 가능하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32~3) | 등록일 : 2009.05.11)

[협회동향] "4일간의 세계여행, 한국국제관광전에 초대합니다"

– 세계 50여개국 참가, 각국의 다양한 볼거리 및 행사 마련

관광의 세계, 신나는 즐거움에 푹 빠져보세요!

세계 각지의 유명 관광지에 대한 정보와 체험, 이벤트 등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제22회 한국국제관광전(2009 Korea World Travel Fair)'이 6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오세아니아 등지의 50여개 국가와 국내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모두 420여개 기관·업체·단체가 참여해 유명 관광지에 대한 여행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박람회장은 ▲지역자치단체, 호텔, 항공사, 여행사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관광사업관 ▲세계 50개국 관광청이 자국의 관광 아이템을 소개하는 국제교류관 ▲국내여행사들이 관광상품을 할인판매하고 경품의 기회도 제공하는 여행상품관 ▲국내·외 전통 민속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부대행사관 ▲도자기 제작과 한지공예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 ▲세계의 특색 있는 토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계풍물관 등 총 6개의 전시관으로 꾸며진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전 세계 관광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척도를 제시하면서 세계 관광객들이 여행을 계획하는 순간부터 환경 친화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같은 관광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 설명회 · 세미나 등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편 전시장 내 메인무대에서는 관람객들을 위해 국내·외 민속공연이 다채롭게 시간대 별로 펼쳐지며, 이스라엘 홍보관에서는 머드팩체험 이벤트를, 마카오 홍보관에서는 에그 타르트 시식 및 그랑프리 시뮬레이션 게임, 케리커쳐 그려주기 이벤트를 펼칠 계획이다. 또 대만 홍보관

에서는 찹쌀떡 반죽으로 인형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선물하고 특별 체험행사도 선사할 계획이다.

입장권은 홈페이지(www.kotfa.co.kr)를 통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매할 경우 성인 3,000원, 초·중·고 학생은 2,000원, 단체관람객은 20인 이상일 경우 50% 할인된다. 이 밖에 만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유치원생과 관광사업체 관계자는 무료입장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757-6161) | 등록일 : 2009.05.12)

[언론동향][연합뉴스] 골든위크에 일본인 4만명 다녀갔다

– 엔고 효과.. 작년 동기대비 40%↑

노동절과 주말이 낀 일본의 황금연휴(골든위크) 기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 사이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총 3만9천426명으로 작년 동기(2만8천142명)에 비해 40.1%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는 8만5천8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446명에 비해 21.9% 늘었다.

외국인 입국자를 국적별로 보면 일본인이 3만2천180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37.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중국인(1만2천456명, 14.5%), 미국인(1만715명, 12.5%), 대만인(5천857명, 6.8%) 등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엔화 강세에 힘입어 일본인 여행객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윤종석 기자(banana@yna.co.kr) | 등록일 : 2009.05.07)

[언론동향][연합뉴스]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폐막

– 외국인 23만여명 포함 181만명 참관

화창한 5월 서울의 도심을 다채로운 행사로 수놓았던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가 10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이승환, 윤도현밴드 등이 출연하는 폐막 공연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9일간 서울광장과 청계천, 5대 궁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외국인 23만여명을 포함해 약 181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 서울광장에서는 '팔색무도회'와 '팔색놀이마당'이라는 주제로 각종 공연이 열렸으며, 청계천에서는 '나눔 청계천'이라는 주제 아래 동전기부행사(사랑의 동전밭)와 벼룩장터(꽃분홍 나눔장터)가 열려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서울광장의 하늘에 섬유 소재 장막 40여개가 축제의 상징물로 설치돼

봄바람을 타고 흐르면서 도시 경관과 어우러지는 장관을 연출했다.

한편 개막일인 지난 2일에는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리면서 일부 시위대가 '하이서울페스티벌' 무대를 점거해 개막행사가 전면 취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3일부터는 예정된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며 연일 화창한 날씨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여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폐막식에서 "지난 9일간 축제현장에서만큼은 모두가 잠시나마 시름을 잊고 행복한 마음으로 즐길 수가 있었다"며 "2009년 서울의 봄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담당 : 이유미 기자(gatsby@yna.co.kr) | 등록일 : 2009.05.10)

[언론동향][주간한국] 일본 관광객 특수, 한철 장사 안 되려면

– 엔화 강세 타고 대부분 쇼핑 목적… 음식 · 자연 테마 관광상품 늘려야

4월25일부터 5월5일까지 이어지는 일본에서 가장 긴 연휴기간인 골든위크를 맞아 국내 항공업계와 상점, 호텔 등이 일본인 손님맞이로 분주다. 올해는 특히, 엔화 강세로 3년 만에 일본의 해외여행자 수가 대폭 증가한 데다, 연휴기간에 일본을 떠나는 해외여행객 50만 명 중 약 10만 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럽행(7만 여명)과 오세아니아행(1만8천 여명) 여행객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로, 한국이 가장 인기 있는 해외여행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가 전국 1,200명의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골든위크 여행동향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골든위크 기간 중 일본인 해외여행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황금연휴 기간 중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4%나 늘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일본 관광객 급증은 환율 가치에 따른 특수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엔저가 찾아와도 일본 관광객 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엔저 오면 일본 관광객 특수 사라질까

서울 명동 거리와 동대문 쇼핑상가 등 쇼핑 중심가는 요즘 가는 곳마다 일본인 여행객들로 초만원을 이룬다. 길거리 상점에서부터 대형 백화점까지, 일본인이 많이 모이는 곳의 유통업체들은 일본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명동의 상점들은 문 앞에 일본어 안내 간판을 내걸고, 점원이 나와 일본 말로 호객행위를 하는 곳도 많다.

롯데백화점은 최근 일본어 가이드북을 별도로 만들어 비치해 두는가 하면, 일본인들이 많이 찾는 식품매장 천장에 일본어로 안내 부착물을 붙여 놓고, 일본어 통역 요원들을 배치시켜 쇼핑 편의를 최대한 돕고 있다. 또, 일본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김치와 김, 젓갈류를 10~30% 할인해주는 행사도 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조선호텔과 그랜드하얏트서울 등 특급호텔과 제휴해 투숙객들에게 김과 김치, 화장품의 할인권을 제공한다. 연간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 가운데 절반가량이 다녀간다는 골든위크 기간 중 가장 활기를 띠는 것은 관광명소가 아닌 유통업계다.

롯데 JTB 일본 인바운드 여행담당 이기현 매니저는 "이 기간 중 한국을 찾는 일본인 대다수가 쇼핑을 목적으로 온다"며 "올해는 원화 가치 하락세와 맞물려 우리나라로 더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자료를 보면, 엔화 가치가 하락했던 지난 95년과 2005년, 2006년과 2007년 골든위크 기간에는 국내 일본 관광객 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일본팀 김태윤 차장은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의 통화가치는 우리나라처럼 폭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는 게 이득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면 일본에서 보다 30% 정도 싸다"며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면, 이 같은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보다 물가가 싼 중국이나 태국으로 일본 관광객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과 명동 거리, 동대문 상가 등에서 마주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이번 연휴 때 한국을 찾은 이유를 물었다. 직장에 다닌다는 에미코(30, 여) 씨는 "명품 핸드백과 화장품을 사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다. 대학생 마사시(22, 남) 군도 "핸드폰과 옷을 살 계획으로 왔다"고 했다.

이들에게 한국에서 쇼핑하면 어떤 점이 좋으냐고 묻자, 이구동성 "야쓰이(싸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쇼핑을 목적으로 방문한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쇼핑을 즐기는 주된 이유는 싸기 때문이고, 엔화 가치 하락 시엔 이마저도 효과가 사라진다는 게 대다수 여행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번 골든위크 특수는 그저 한철 호황에 그칠까.

음식 · 자연 테마 관광상품 개발로 포스트 엔고 시대 대비

하지만 이번 일본 관광객 증가는 우리나라의 관광 콘텐츠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어 향후 지속적인 일본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얼마 전 국내 한 방송사에서는 한국 관광공사 도쿄 지사장의 인터뷰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일본인에게 인기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광 콘텐츠가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엔화 강세 현상이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은 더욱 늘고 있고, 여러 번 한국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는 것을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체스투어즈 김경희 씨는 "2~3년 전부터 일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석굴암과 불국사,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세계자연문화유산 방문여행이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서울에 집중됐던 여행객들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난타와 점프 등 국내 공연문화도 일본 관광객 유치에 분명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여행 전문가들은 덧붙인다.

무엇보다 한류 바람이 일본 중년층의 한국 여행 열풍을 일으킨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한류열풍 이후 일본 고도성장의 주역으로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아온 일본 중년층에게 한국은 이야기가 있는 나라, 그래서 메마른 젊은 날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낭만적인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여행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음식도 일본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다. 여행사 HIS코리아 일본팀 관계자는 "매운 것만 제외하면 한식은 일본인들의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이라며 "최근 들어 비빔밥을 먹기 위해 전주를 여행하거나, 부대찌개를 맛보기 위해 의정부로 내려가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 일본팀 김태윤 차장은 이러한 일본인 관광 추세를 참고로 환율가치와 상관없

이 일본인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일본인은 세계 최고의 미각을 자랑하는 국민이다. 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어디든지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우리나라 음식을 매우 즐기는 편이지만 일반 한식당의 위생상태와 서비스 질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남은 반찬의 재활용이나 뜨거운 국물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기, 종업원의 불친절 같은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음식기행 상품도 더 많이 개발하고, 교통의 편의성도 제고해야 한다.

둘째, 국내 여행 희망도가 높은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나 현재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세대)가 한국여행의 만족 요인으로 요리(51.6%) 다음으로 자연(37.3%)을 꼽고 있다. 단카이 세대는 약 7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은퇴 후 퇴직금과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는 이들을 겨냥한 여행상품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본인 여행객들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머무르고 있어, 자연과 연계한 관광품 개발에 더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한국, 담당 : 전세화 기자(candy@hk.co.kr) | 등록일 : 2009.05.07)